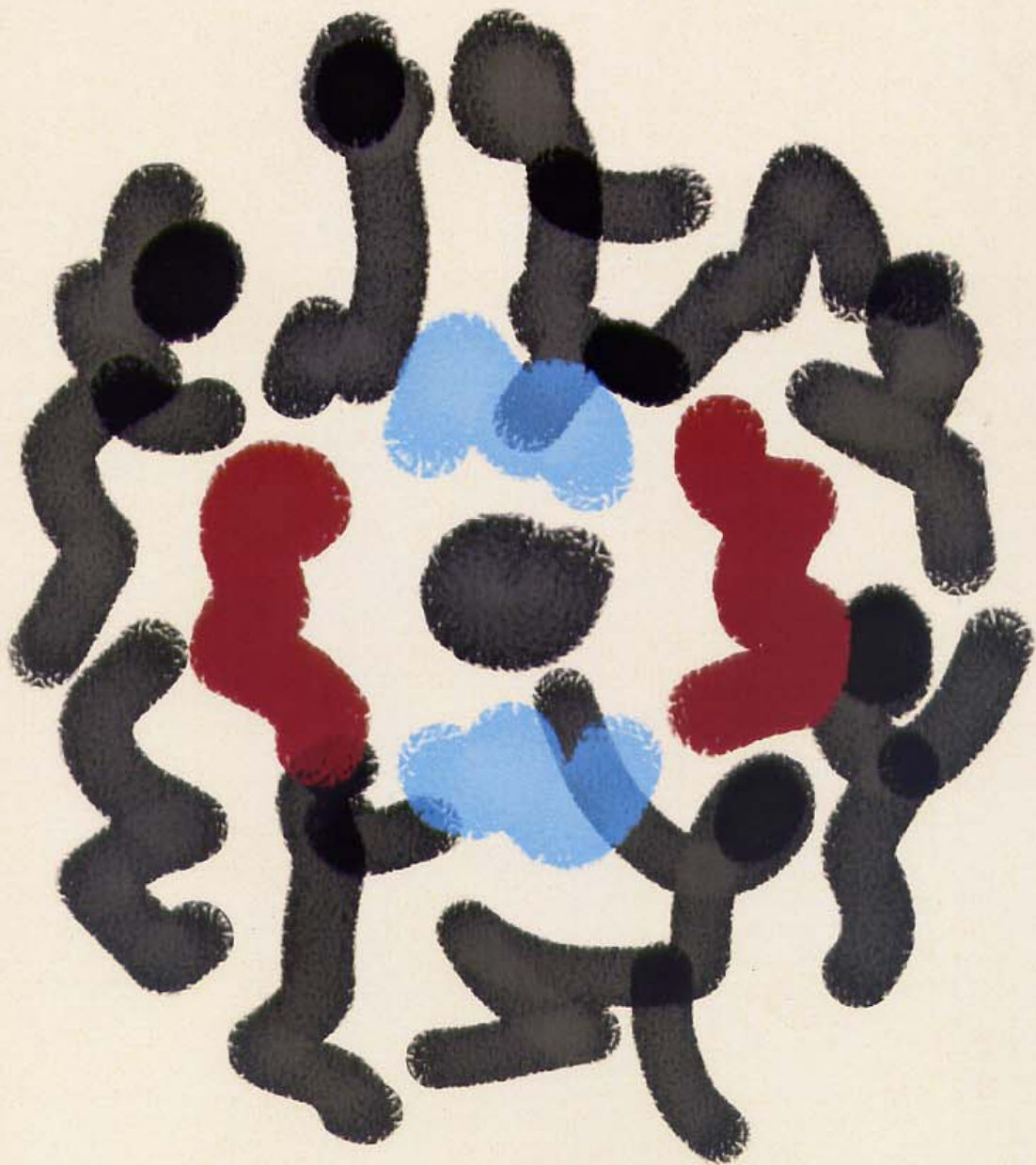


성남문화통화를 통한  
문화예술의 창조, 매개, 향유의  
선순환구조 만들기



# 성남문화통화 도입을 위한 『문화정책 대화모임』

일시 : 2007. 1. 31. 14:00~18:00

장소 : 성남문화재단 컨퍼런스홀





# 목 차

## 5 문화정책 대화모임 개요

- 11 발표 1  
문화예술의 창조, 매개, 향유의 선순환구조 만들기  
전효관(문화통화 모델 연구책임,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 21 발표 2  
성남문화통화의 3가지 모델(안)  
강원재(문화통화 모델 공동연구, 서울시대안교육센터 부센터장)

- 33 발표 3  
성남 문화통화 사례 : 성남문화재단 ‘나눔라디오’ 프로젝트  
오일화(1318해피존 모람아지트(AGIT) 책임실무자)

별첨 : 『문화정책 대화모임』 참석자 명단



# 『문화정책 대화모임』 개요

- 행사 개요
- 성남문화통화 기반조성사업 추진경과



□ 주요 발표 및 토론

【발표 1】

- 문화예술의 창조, 매개, 향유의 선순환구조 만들기
  - 전효관(문화통화 모델 연구책임,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발표 2】

- 성남문화통화의 3가지 모델(안)
  - 강원재(문화통화 모델 공동연구, 서울시대안교육센터 부센터장)

【발표 3】

- 성남 문화통화 사례 - 성남문화재단 ‘나눔라디오’ 프로젝트
  - 오일화(1318해피존 ‘모람아지트’ 책임실무자)

【대 화】

- 사 회 : 박승현

□ 진행순서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개 회	· 14:00	사회(박승현:문화기획부 부장)
인사말	· 14:00~14:10(10)	이종덕(성남문화재단 상임이사)
추진경과	· 14:10~14:20(10)	노재천(성남문화재단 문화사업국장)
발표 1	· 14:20~14:50(30)	전효관(연구 책임)
휴 식	· 14:50~15:00(10)	
발표 2	· 15:00~15:40(40)	강원재(공동연구원)
발표 3	· 15:40~16:10(30)	오일화(모람아지트 책임실무자)
휴 식	· 16:10~16:20(10)	
대 화	· 16:20~18:00(100)	사회(박승현:문화기획부 부장)



## □ 성남문화통화 기반조성사업 추진경과

### ○ 성남문화통화 도입을 위한 지역 기관·단체 간담회

- 일 시 : 2006. 5. 23 / 16:00
- 장 소 :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3층 회의실
- 참가인원 : 6개 기관 11명
- 내 용 : (가칭)성남문화통화 도입에 대한 배경 설명과 의견수렴

### ○ 문화통화 선진지 연수

- 연수기간 : 2006. 8. 22(화)~8. 26(토) 4박 5일
- 주요방문
  - 치바현-피너츠 지역통화(치바마을 가꾸기 센터)
  - 케이오 기주크 대학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종합 연구소-WAT시스템
  - 마치다시 시청-정책심의실
  - 마치다시-다이후쿠쵸 지역통화
  - 사와야키복지재단-타임달러(후레아이티켓)
- 참 가 자 : 7개 기관·단체 10명
  -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예총, 성남문화원, 성남민예총, 성남시자원봉사센터, 성남문화재단

### ○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 2006. 7~2006. 9

- 조 사 명 : 2006 성남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 조사기간 : 2006. 7 ~ 2006. 10
- 조사대상 : 성남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 401명
- 조사내용 : 문화예술 창작여건, 만족도, 문화예술 저해요인, 지역 문화예술 현안, 참여도, 분야별 문화예술 활동 실태

### ○ 문화통화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 사 업 명 : 나눔라디오(라디오 방송 만들기를 통한 문화통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기 간 : 2006. 11. 1 ~ 2006. 12. 30
- 선정단체 : 기분좋은 트렌드하우스 QX
- 운영기관 : 태평4동 1318해피존(happyzone)/책임자 - 오일화
- 참가인원 : 15명

## ■ 문화정책 대화모임

### ○ 문화통화 실행모델 연구

· 기 간 : 2006. 12 ~ 2007. 2

· 연구팀 :

- 연구책임 : 전효관(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박승현(문화기획부 부장)
- 공동연구 : 강원재(서울시대안교육센터 부센터장), 정석준(문화기획부 과장)
- 연구보조 : 우장순(성남청년대학 부회장)



## 발표 1

－ 문화예술의 창조, 매개, 향유의 선순환구조 만들기

전효관

(문화통화 모델 연구책임,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 1. 시대변화의 특성과 도시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 가. 저성장 위험사회에 대한 주체적 대응 필요성

- 한국사회는 급격한 세계화, 정보화의 물결 속에서 사회적 양극화가 예상되고 있다. 사회적 양극화는 의료, 보건, 교육, 문화 등 사회적 서비스의 증가 요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서비스를 지탱할 수 있는 자생적이고 자립적인 사회적 설계가 없다면 지역사회가 활력을 띠고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부재하게 된다.
- 또한 사회가 빈곤을 벗어나면서 시민들은 문화적 향유, 문화적 접근, 문화적 환경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도시의 경우 문화적 쾌적성을 요구하는 수요가 급팽창하고 있다. 팽창하고 있는 문화 욕구에 대응하여 문화를 통한 도시 관리의 중요성은 도시에 내재하는 위험에 대처하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
- 사회적 공적 서비스는 국가 수준의 정책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수준의 정책에 의해서 제공되어야 하며, 시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공적 서비스의 질이 시민의 만족도와 직결된다.

### 나. 문화통화를 통한 도시정책의 효율화 필요

- 도시정책은 이러한 사회적 서비스의 확대 요구에 따라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원 사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도시 정책의 핵심 중의 하나가 도시 스스로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에 있다면, 사회적 서비스 제공이 지역 사회 내 순환 구조를 통해 자립적인 기능을 회복해 가는 방안의 설계는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 지역 통화제도의 활용은 지역 내 개인과 단체들의 연계망을 구축하여 행정 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이고, 사회적 서비스의 내용을 다양화함으로써 도시정책의 질을 높이고 효과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장기적인 전망에서 '통화'의 도입은 지역 자원의 활용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지역 주체를 형성하며 지역 주체들 사이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다.
- 성남시는 한국사회의 도시 개발 역사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로를 겪어 왔으며, 이 결과 구도시와 신도시 사이의 생활의 격차가 가장 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장소이다. 한편으로는 분당, 판교 개발을 통해 한국사회의 부의 벨트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구도시의 경우 도시 개발에서 소외된 잠재적 박탈감이 지배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 성남문화통화의 도입은 ‘문화’를 통한 도시정책 모델을 선도적으로 개척하는 의미 외에도 문화통화의 시행을 통해 성남시가 안고 있는 ‘단절’을 극복해가는 공공정책 모델을 정착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다.

## 2. 새로운 문화정책을 위한 실험과 도전의 필요성

- 성남시는 성남문화재단과 성남아트센터 개관을 통해 문화정책을 전문화하고 시민들의 문화적 향유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성남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는 공간, 인적 자원의 효과적 활용 외에도 문화재단이 시행하고 있는 문화도시 사업, 예술인 지원 등의 사업을 재배치하여 문화적 지원 모델의 효과를 높이는 방안 모색이 필수적이다.
- 한국사회에서 예술 창조, 문화 매개활동, 시민의 향유 사이에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것은 예술 지원의 핵심적 사안이다. 창조·매개·향유 사이의 선순환 구조 형성이라는 과제는 지자체(시) 차원에서 보자면 문화가 중심이 되는 ‘생태계’를 조성하여 장기적으로 문화도시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
- 성남문화재단은 ‘문화통화’ 제도의 도입을 통해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예술 지원의 순환 구조를 형성하며 예술향유 기반을 구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문화통화의 도입은 도시 내에서 작동하는 커뮤니티 솔루션을 만들고, 관계를 형성하고 관계 밀도를 증가하여 스스로의 자립 패턴을 만들어 내 공동의 경험을 도시의 유택한 공동자산화하는 일이 가능하게 한다.

## 3. 성남시 문화예술 생태계 분석

### 가. 문화예술인

- <2006 성남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성남시의 문화예술인은 약 2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장르별로는 문학(4.5%), 미술(14.8%), 사진(9.2%), 국악(19.2%), 음악(30.9%), 연극(3.5%), 무용(14.2%), 영화(1%), 대중예술(2.7%)로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예술 매개 활동 관련해서는 미진한 조사 결과이지만, 일단 문화예술 전문가들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유의미하다.
- 문화통화 도입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응답 결과는 봉사활동 참여 경험과 참여 의사가

## ■ 문화정책 대화모임

아주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문화예술관련 사회봉사 활동에서 '현재 하고 있다'(49%)와 과거에 한 적 있다'(30.9%)로 응답 결과가 나왔으며, 참여 의사와 관련해서는 '가능하면 하겠다'(86.7%), '반드시 하겠다'(9.2%)로 응답하여 전체 98.7%라는 절대 다수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참여할 의사가 있는 활동 내역에 대해서는 '복지시설 문화예술공연 봉사'(36.7%), '문화예술교육'(25.5%),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24.7%), '지역동호회 클럽 지원'(11%)로 제시되었다. 또한 문화예술교환시스템 참여 의사와 관련해서는 96.5%가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고, 문화예술교육 강사 참여의사도 거의 비슷한 94.7%가 참여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 이러한 조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문화통화 도입시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할 잠재적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특히 주민과의 거리 극복이나 지역공동체 의식 향상을 위해 문화예술교환시스템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은 문화통화의 도입 취지에 근접한 것으로 향후 시스템 설계에서 고려할 가치가 충분하다.

## 나. 문화예술단체

- 성남시의 문화예술단체는 현재 문화종합 6곳을 포함하여 총 206개의 단체가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장르별로는 문학(13), 국악(39), 음악(68), 사진(15), 연극(6), 미술(26), 영화(4), 대중예술(6), 무용(23)으로 분포되어 있다. 또 성남의 문화예술인들은 크게 예충에 약 2000여명, 민예충에 100여명이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문화통화 관련해서 단체의 중요성은 문화통화에 소속 회원의 참여라는 차원 외에도 문화통화의 매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소속 회원들에 대한 홍보 및 참여 권유 및 가능한 문화예술관련 서비스 파악 차원의 정보 매개 기능, 일부에 한정되지만 자체 공간 운영 등을 하고 있는 단체의 경우 시민과 문화클럽과의 상호 문화통화 교환을 활성화할 수 있는 자원 매개 기능, 나아가 문화통화 운영에서 성남문화재단과의 협업과 네트워크 구성 등 운영 매개 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다.
- 성남 문화재단이 기획하고 있는 문화도시 5대 사업의 성공 여부는 도시 내의 문화예술순환 시스템을 확장하려는 문화예술인과 시민의 참여와 변화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화통화는 참여와 변화를 위한 시스템으로 기능해야 하는데, 이 때 단체들이 사업 취지에 동의하고 서로의 성과를 공유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단체와의 협업 시스템 구축은 문화통화 활성화를 위한 핵심적 조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다. 문화클럽의 존재형태와 문화통화와의 연관성**

- <사랑방 문화클럽 발전방안 연구>, <사랑방문화클럽 실태 및 욕구조사>는 문화통화 도입을 위한 판단을 가능하게 해주는 조사 연구물이다. 특히 문화클럽의 중요성은 관계 형성을 통해 문화를 학습하고 교환하는 문화통화의 개념과 조응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문화클럽들은 최근 부상하고 있는 소비자(prosumer) 개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매개 그룹으로 발전 가능하다.
- 선행 연구에서는 문화 클럽의 유형을 친목클럽, 배움클럽, 숙련클럽, 공헌클럽으로 구분하였다. 문화통화 도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문화통화와의 연결가능성은 친목클럽 < 배움클럽 < 숙련클럽 < 공헌클럽 이라는 스펙트럼 상에서 배치될 수 있다.
- 물론 문화클럽의 유형에 따라 문화통화에 참여할 객관적 가능성이 다르다. 친목클럽은 내부 결속이 목적이어서 통화에 참여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배움클럽의 경우는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도는 낮지만, 학습 참여 욕구를 가지고 있어 문화예술 전문가와 연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숙련클럽은 배우는 과정 및 발표 욕구를 가지고 있어 문화 예술 전문가와 공간 제공 등과 연결될 가능성이 크고, 공헌클럽은 대외 활동 정도가 높아 문화통화 전반의 피드백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 문화클럽 조사 연구에서는 전체적으로 예산 지원(22.6%), 모임공간 지원(18.2%), 질 높은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13.5%), 발표장소 지원(12%)로 나타났다. 다음은 문화클럽별 지원 요구 현황이다.

지원항목	친목클럽	배움클럽	숙련클럽	공헌클럽
질 높은 프로그램 제공	12.0	22.0	10.0	10.1
모임 공간	19.0	17.0	19.0	17.8
발표 장소	10.0	8.0	13.0	16.8
다른 커뮤니티와의 교류	4.0	6.0	6.0	4.4
전문 지도자 연결	10.0	11.0	7.0	7.4
예산 일부 지원	23.0	17.0	26.0	24.2
커뮤니티 홍보공간	3.0	3.0	2.0	2.7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	3.0	2.0	3.0	1.7
문화관련 행사	10.0	6.0	12.0	12.8
커뮤니티 관심 정보 제공	5.0	7.0	2.0	2.0
총	100.0	100.0	10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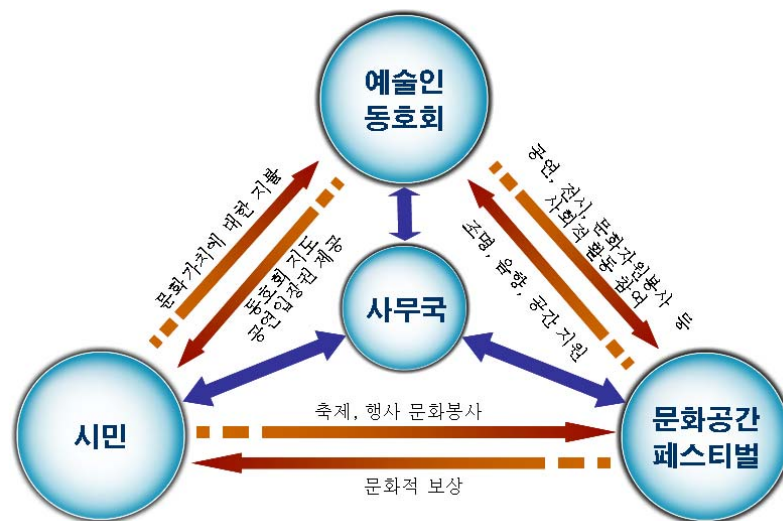
## Ⅰ 문화정책 대화모임

- 이 결과에서 추정하면, 문화클럽의 요구는 예산 지원과 공간 지원(모임 공간과 발표 장소)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기타 친목클럽과 배움클럽에서는 프로그램 제공과 전문지도자 연결 등의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숙련클럽과 공헌클럽은 발표 장소와 문화관련 행사 참여 의사가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결과는 클럽의 유형에 따라 문화통화 시스템에 참여하는 방식이 다를 것으로 추정가능하다.
- 성남 문화재단의 포지션에서 보자면, 이러한 결과는 문화통화 도입에 있어 전략 원칙 설정을 가능하게 한다. 성남 문화재단은 공간과 예산에 대한 지원 기능을 하기 위해 아마추어 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 등을 신설하고, 문화클럽 지원 사업을 문화통화 사업과 연계하여 한편으로는 클럽의 전문성을 업그레이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사회와의 연관을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아마추어 및 클럽 지원의 경우 목적별 지원사업의 성격을 강하게 취하면서 일상 창작과 생활예술의 근거로 육성해나가는 정책 목표를 분명히 하면, 문화통화는 이러한 목적을 추진하는 엔진으로 기능할 가능성을 부여받게 된다.

## 4. 성남문화통화의 개념

### 가. 개념

성남문화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닌 문화통화라는 성남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화폐(지역통화)를 사용하여 시민, 동호회, 예술인들의 문화예술 창작활성화와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성남문화통화시스템>

이 모든 교환에 성남문화통화를 사용하여 성남지역의 문화예술 자원, 사람이 지닌 잠재력과 가능성을 이끌어내어 사람, 커뮤니티, 지역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문화를 나눔으로써 문화적 풍요가 강물처럼 흐르는 성남을 만들고자 합니다.

#### 나. 지역통화란 무엇인가?

‘지역통화운동’은 돈 없이도 물건과 서비스를 주고받을 수 있게 만들자는 움직임  
지역통화운동(LETS : Local Exchange and Trading System)이란 돈 없이도 서비스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해보자는 움직임입니다. 누구나 다른 이와 나누어 쓸 수 있는 것을 조금은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꼭 돈이나 물건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가진 소중한 능력, 작은 정보를 함께 나누면서 살려는 노력이 바로 지역통화운동입니다.

지역통화운동은 현재 전세계 3,000여 곳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으며, 좀더 널리 퍼져 있는 곳은 서양이지만,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는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레나 품앗이 같은 공동체의 삶을 온몸으로 느끼고 살아왔던 우리에게 지역통화운동은 현대인의 생활양식에 알맞게 다듬은 함께 사는 지혜입니다. 과거의 물물교환, 노동교환, 좋은 만남의 장을 현대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 바로 지역통화운동이라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노인이나 실업자들을 지역경제에 적절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대안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배움을 주고 받는 교육통화로 새로이 자리잡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2004년 6월 ‘작아장터’ 중에서)

## 5. 성남문화재단에서 활용 가능한 문화통화제 모델제안 및 실행전략 연구 목차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1 연구의 배경

- 1.1.1 저성장 위험사회에 대한 주체적 대응 필요성
- 1.1.2 문화통화를 통한 도시정책의 효율화 필요
- 1.1.3 성남 문화재단의 효과적 지원 모델의 필요성
- 1.1.4 성남 문화재단의 지속가능한 문화재원확보의 필요성

#### 1.2 연구의 목적과 범위

- 1.2.1 지역통화 모델의 활용 가능성 도출
- 1.2.2 성남 문화재단의 주도성(주도, 지원, 연계)을 전제한 역할 모델 수립
- 1.2.3 문화통화 실행모델 및 실행계획 제시

### 2. 성남문화통화제의 이해

#### 2.1 성남문화통화제 개념

#### 2.2 성남문화통화제 개요와 운영원리(안)

- 2.2.1 개요
- 2.2.2 운영원리

#### 2.3 성남문화재단의 문화예술진흥 목표 군별 활용 가능한 문화통화 거래 품목과 연계사업

#### 2.4 성남문화통화제 도입의 기대효과

#### 2.5 국내외 선행연구(지역통화시스템 일반에 관한 문헌 연구 part)

### 3. 성남시 문화예술 환경분석

#### 3.1 성남문화재단의 자원과 의지 분석

#### 3.2 성남시의 주체적 조건 분석

#### 3.3 성남시 문화예술 생태계 분석

- 3.3.1 문화기반시설
- 3.3.2 문화예술인
- 3.3.3 문화예술단체
- 3.3.4 문화클럽

### 4. 성남문화통화제 모델(안)

#### 4.1 재단 주도 문화통화형 모델 : 사랑방문화클럽활성화를 중심으로

- 4.1.1 사업모형도
- 4.1.2 사업의 목적과 추진 원칙
- 4.1.3 기본흐름도(안)

- 4.1.4 사업의 내용
- 4.1.5 추진체계
- 4.1.6 추진전략
- 4.1.7 2007년 시범사업 일정
- 4.1.8 예산
- 4.1.9 기대효과
- 4.1.10 고려사항

#### 4.2 민간 주도 재단 지원 문화통화형 모델

- 4.2.1 모형도
- 4.2.2 사업의 목적과 추진 원칙
- 4.2.3 기본흐름도(안)
- 4.2.4 사업의 내용
- 4.2.5 추진체계
- 4.2.6 추진전략
- 4.2.7 2007년 시범사업 일정
- 4.2.8 예산
- 4.2.9 기대효과
- 4.2.10 고려사항

#### 4.3 재단-금융카드사 연계 문화통화 응용형 모델

- 4.3.1 모형도
- 4.3.2 사업의 목적과 추진 원칙
- 4.3.3 기본흐름도(안)
- 4.3.4 사업의 내용
- 4.3.5 추진체계
- 4.3.6 추진전략
- 4.3.7 2007년 시범사업 일정
- 4.3.8 예산
- 4.3.9 기대효과
- 4.3.10 고려사항

### 5. 성남문화통화 활성화 추진전략

- 5.1 문화통화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쟁점
- 5.2 문화통화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운영 방향
- 5.3 성남문화재단의 역할

부록1. 성남문화통화제 도입과 활용에 대한 성남시 문화예술 관련 주체들의 의식 조사

부록2. 성남문화통화제 활용 문화 라이프 스타일 제안

## 발표 2

– 성남문화통화의 3가지 모델(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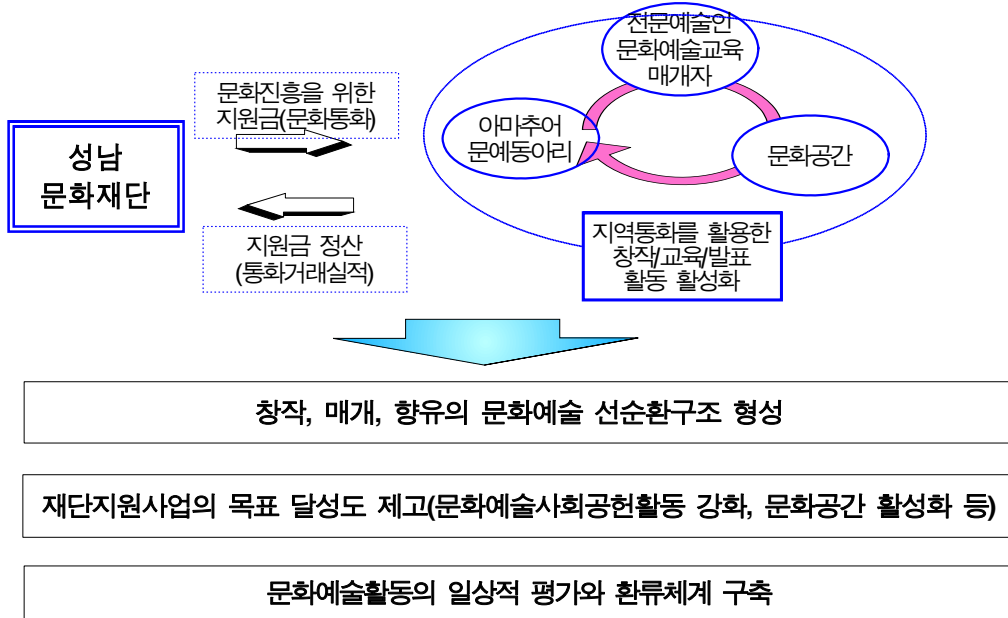
강원재  
(문화통화 모델 공동연구, 서울시대안교육센터 부센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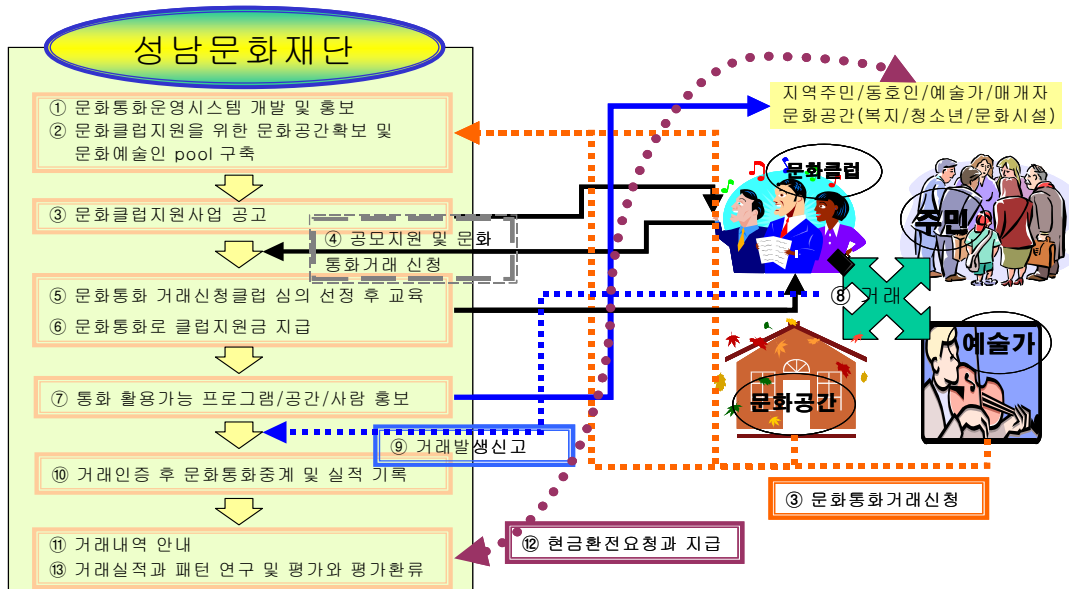
Ⅰ 문화정책 대화모임

1. 제 1안 (재단 중심) : 사랑방문화클럽활성화를 중심으로

가. 개념도



나. 기본흐름도(안)





**다. 사업의 목적과 추진 원칙**

- 건강한 지역문화생태계 조성
- 주체적 문화생비자 발굴과 지원
- 지역사회 문화예술 자원 네트워킹
- 문화예술 창작, 매개, 향유의 선순환 체제 구축
- 지역의 문화여건 개선을 위한 문화자원 확대 재생산

**라. 사업의 내용**

- 문화통화운영시스템 개발 및 구축
- 문화클럽지원을 위한 문화공간 확보 및 문화예술인 POOL구축
- 문화클럽지원을 위한 공모사업 실시(공고->접수->심의결정->지원)
- 문화통화 활용 문화클럽 실무자 워크숍
- 문화통화제 및 문화통화 활용 클럽과 프로그램 홍보(마을축제에 문화클럽 초청 유도)
- 문화통화 거래인증 및 중계와 실적 기록
- 문화통화 거래 패턴 연구와 실적 평가 및 환류

**마. 추진전략**

- 문화클럽 동호인들의 상황과 요구에 근거한 사업계획 수립 및 주체적 참여 유도
- 성남문화재단의 기 사업 연계 : 사랑방 문화클럽 활성화 지원사업 / 성남인의 창작활동 진흥사업 /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 성남시의 지역적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고 사업주체의 준비 정도에 기초한 사업
- 문화클럽 동호인들의 문화예술향유기회확대와 성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 공간, 인력 등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근거한 시스템 운영
- 마을축제-예술인-동호인-문화공간-시민 등의 각 문화주체들이 서로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사례 구축을 일차적 목표로 진행하고, 향후 성남시 문화클럽을 비롯한 문화예술진흥 사업과 성남시 문화복지와 성남시민들의 생활 전반의 서비스지원체로 확대 운영
- 향후 타 지역 확산을 위한 단계적 추진 계획 마련

**바. 고려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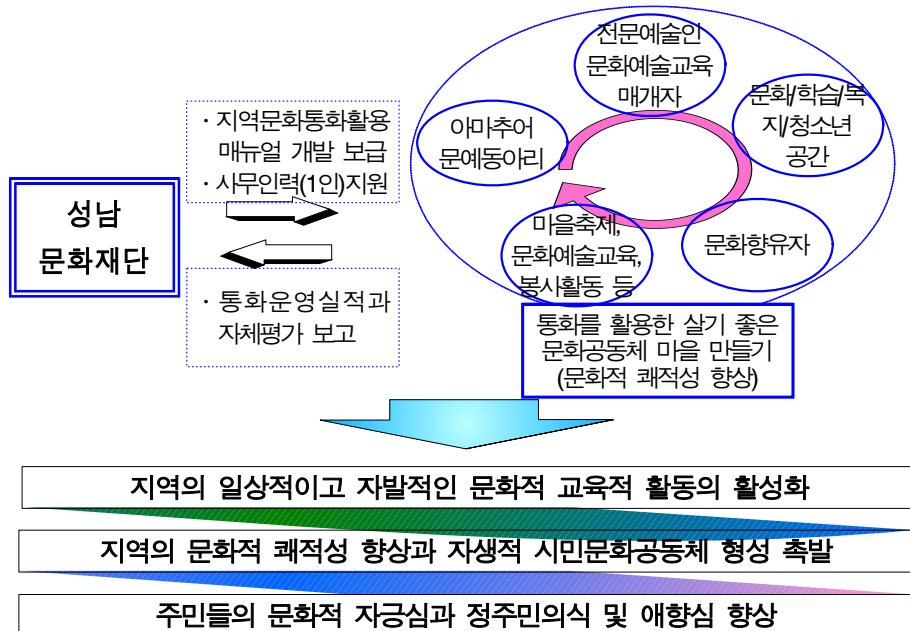
- 지역통화의 활용 의미의 축소 우려
- 지역통화가 단순히 문화재단에서 지원사업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지원금을 현금대신 문화통화로 발행한다는 의미로만 한정됨으로써 “신뢰를 토대로 하는 공동체 사회의 존재, 혹은 이러한 공동체의 형성을 촉진하는 매개적 위상으로 지역의 다양한 수요와 잠재된 자원을 연결하여 상호 협력의 관계를 창출하는 시민사회형성”이라는 지역통화 원칙지의 많은 부분을 잃어버릴 수 있음에 유의.

## Ⅰ 문화정책 대화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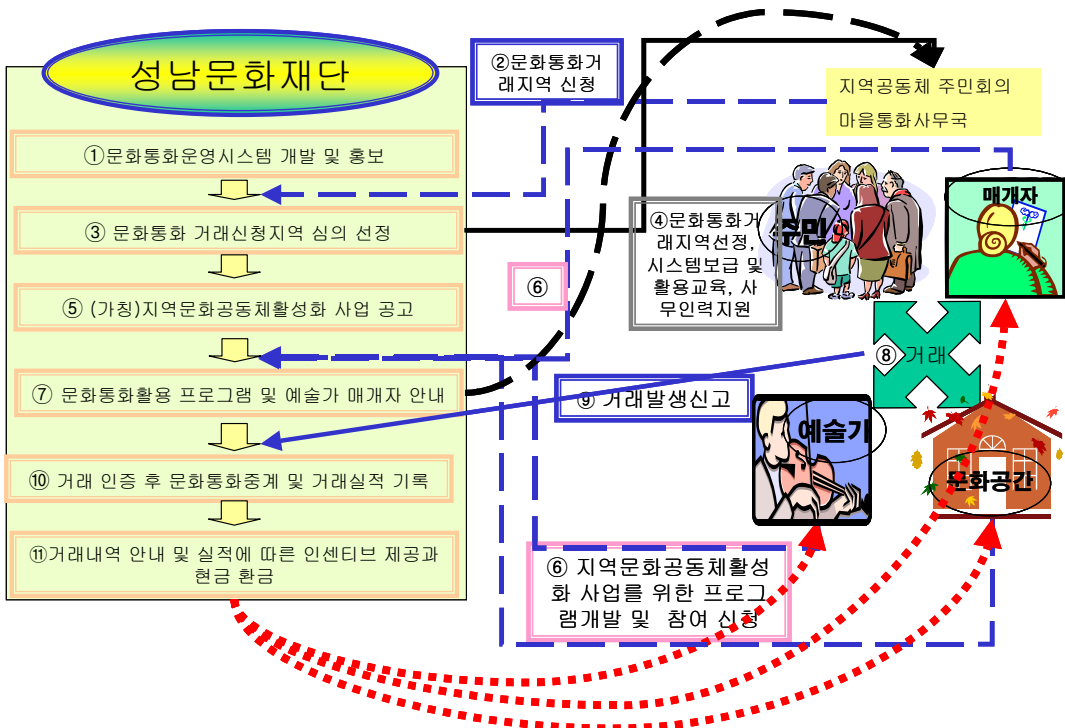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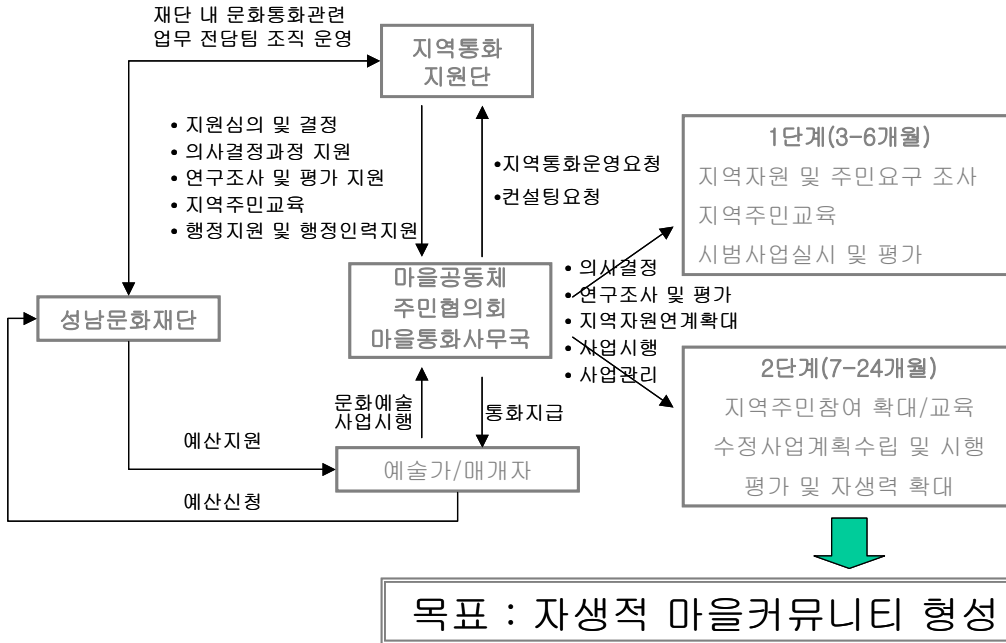
- 통화의 순환률이 그다지 높지 않을 가능성 고려
  - ‘지역사회문화봉사활동 확대 유도’, ‘지역의 사랑방 문화클럽활성화’, ‘지역문화공간운영 활성화’라는 재단의 사업 목적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문화통화를 사용할 수 있는 용처를 재단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문화예술 분야에 한정함으로써 통화의 순환률이 높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해 두어야함.
- 환금 여부에 따른 고려사항과 재단의 대처
  - 법정통화(₩)로 환금할 경우, 재화의 축적 수단으로서의 화폐라는 이해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특정 관계집단을 통해 문화통화제가 악용될 여지도 있음. 건전한 통화제 운영의 초기 정착을 위한 지원기관으로서의 재단의 노력이 필요함.
  - 환금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금에 상응하는 ‘아트센터무료사용’, ‘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행사초대’, ‘문화통화를 통한 문화자원봉사상’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통화사용을 유도해야함.(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는 성남시 차원에서 문화통화운영조례 등이 제정될 필요가 있음)

## 2. 제 2안 (민간 중심) : 재단 지원 문화통화형 모델

### 가. 개념도



나. 기본흐름도(안)



※ 모델특징

- 환전성 없는 자생적 지역통화와 환전성을 가진 재단지원 문화통화의 혼용 방식
- 문화통화의 경우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사후지원방식(마을별 문화통화 한도금액 제시)

Ⅰ 문화정책 대화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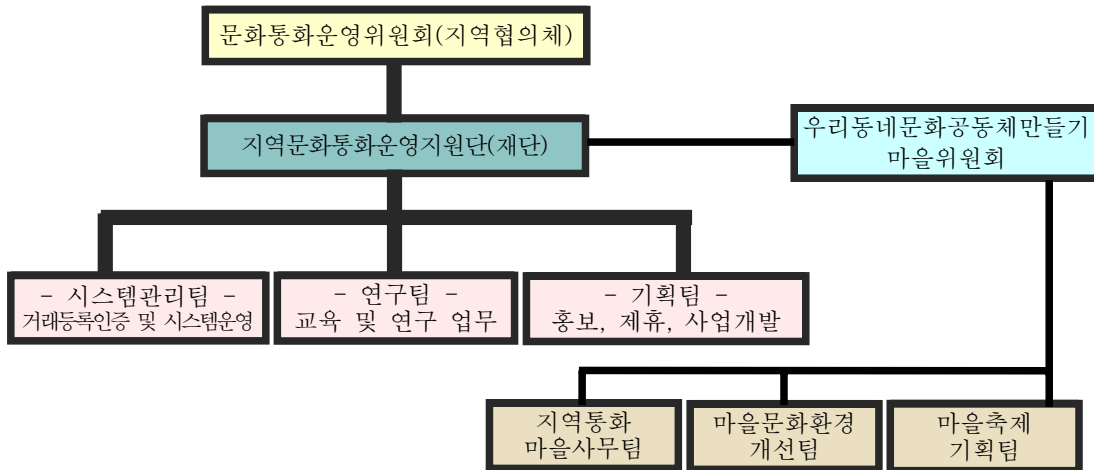
다. 사업의 목적과 추진 원칙

- 건강한 지역문화생태계 조성
- 마을의 문화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참여의식 제고와 문화자원 확대 재생산
- 마을의 문화적 쾌적성(amenity) 향상
- 지역사회 문화예술 자원 네트워킹
- 마을 단위의 문화예술 창작, 매개, 향유의 선순환 체제 구축

라. 사업의 내용

- 문화통화운영시스템 개발 및 구축
-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를 위한 공모사업 실시(공고->접수->심의결정->지원)
- 문화통화 활용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 실무자 교육 실시
- 지역커뮤니티 형성지원을 위한 매개자그룹 확보 및 문화예술인 POOL구축(공모 방식)
- 문화통화제와 매개자그룹 및 문화예술인 홍보(<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에 매개자, 예술인, 문화공간 연계 유도)
- 문화통화 거래인증 및 증계와 기록
- 문화통화 거래 패턴 연구와 실적 평가 및 환류

마. 추진체계



\* 마을공동체 위원회는 성남지역문화통화 마을사무국 정도의 위상을 갖고 지역자원과 주민요구조사 실시에서부터 실제 지역통화 활용 기획과 행정까지를 총괄한다.

바. 추진전략

- 초기단계에서 지역의 문화예술 주민주체 형성에 주력
- 성남문화재단의 기 사업 적극 활용 : 성남인의 창작활동 진흥사업,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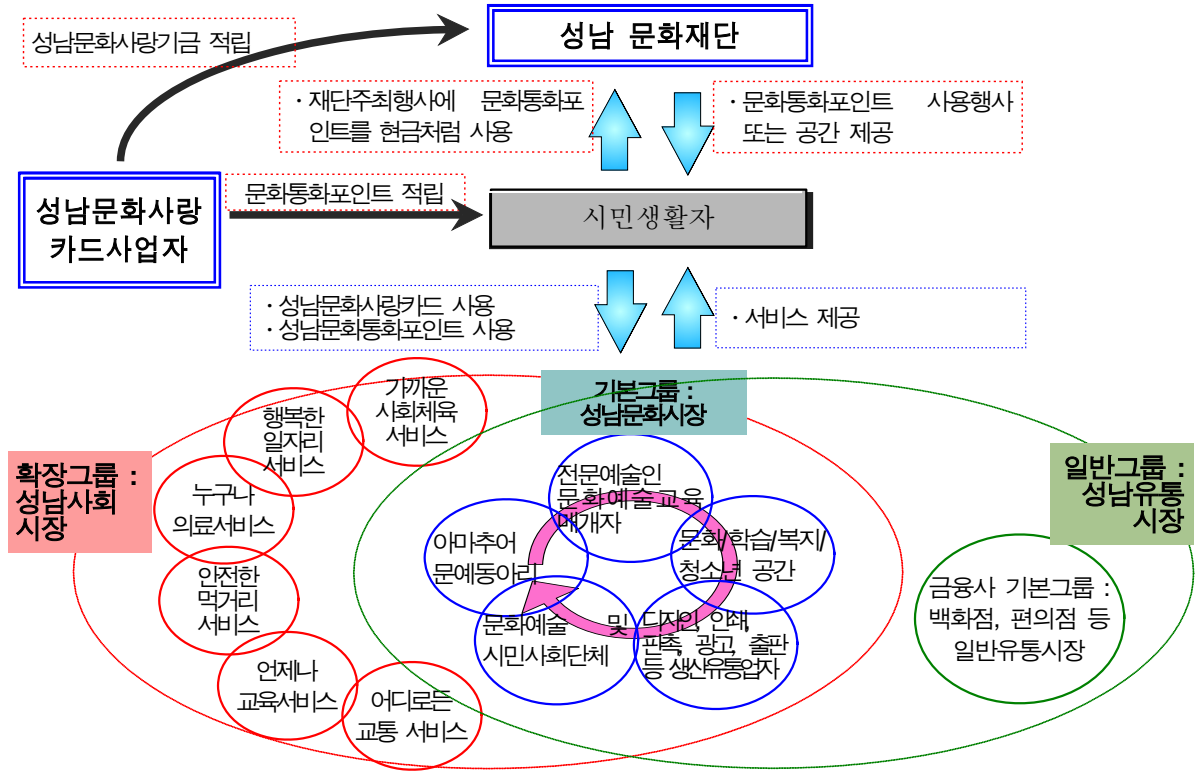
- 지역주민들의 상황과 요구에 근거한 사업계획 수립 및 자발적 참여 유도
-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향유기회확대와 성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 공간, 인력 등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근거한 시스템 운영
- 지역의 문화예술 주민주체 형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마을축제-예술인-동호인-문화공간-마을주민 등의 각 문화주체들이 서로 네트워크 될 수 있도록 미리 섭외된 매개자 그룹이 적극적인 컨설팅을 하고, 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마을문화환경 개선과 마을축제만들기 사업 추진
- 지역통화를 활용하는 각 마을 간 연동체계 구축 및 지역통화를 통한 커뮤니티 형성사업 확산
- 향후 성남시 문화복지와 성남시민들의 생활 전반의 서비스지원제로 확대 운영

#### 사. 고려사항

- 초기 시스템 설계의 어려움
  - 마을사무국과 재단의 시스템 간의 연동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됨.
  - 사후지원방식에 따라 예술인들이 초기 지역통화만으로는 지역 내에서 기획자금과 재료비, 각종 임(대)차비용을 모두 조달하기 어려울 수 있음. 따라서 지역 내에서 모두 조달하기 어려운 예산항목들에 대해서 재단의 지원이 필요해 질 것임.
- 지역사회 시민의식 여부
  - 주민들의 자발적 지역통화운영을 모델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시민사회 주체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성남시 내에서 이러한 주체의 발굴이 어려울 수 있음.(‘분당 한 살림’, ‘성남의료생협’, ‘이우교육공동체’ 정도의 주체가 확인되고 있음)
- 문화통화운영조례의 필요성
  - 문화통화제의 정착단계까지는 예술인, 매개자, 문화공간의 참여유도를 위한 인센티브와 재단 기금의 문화통화 전환 사용에 대한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사랑방문화클럽 활성화 모델과 마찬가지로 문화통화활용 촉진과 운영규정 마련을 위한 성남시 차원에서 문화통화운영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음.

### 3. 제 3안 (금융카드사 연계 문화통화 응용형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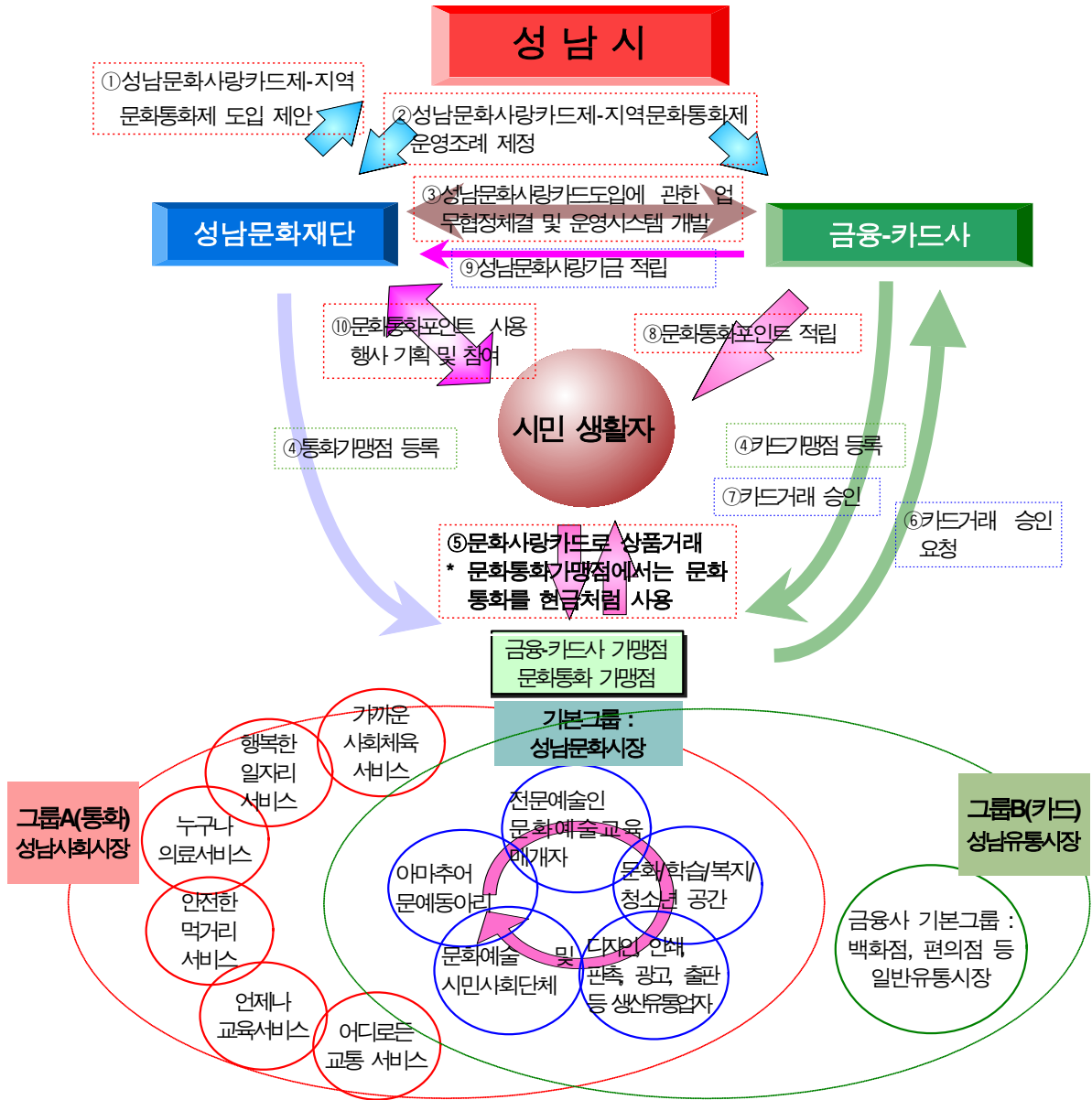
#### 가. 개념도



#### 나. 사업의 목적과 추진 원칙

- 성남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재원 창출
- 법정통화와 연계된 새로운 지역문화통화 시스템 개발 및 정착
- 문화도시 성남시 만들기를 위한 주민참여의식 제고와 문화자원 확대 재생산
- 성남시 문화산업의 활성화와 사회적 시장 개척
- 건강한 지역문화생태계 조성

다. 기본흐름도(안)



라. 사업의 내용

- 성남문화사랑카드제-지역문화통화제 도입 및 운영계획과 성남시 제안
- 성남문화사랑카드제-지역문화통화제 운영조례 제정 성남시의회 건의
- 성남문화사랑카드도입에 관한 금융사와의 업무협정체결 및 운영시스템 개발
- 문화사랑카드와 문화통화 사용 가맹점 모집
- 문화사랑카드홍보 및 카드발급

## Ⅰ 문화정책 대화모임

- 문화사랑카드와 문화통화 거래실적 모니터링
- 문화통화포인트 활용 사업 개발 및 홍보
- 평가 및 환류

### 마. 추진전략

- 초기 성남지역문화시장과 사회적 시장 형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공유하면서 시민사회와 성남시의 이해를 구하는 데 주력
- 국가주도의 법정통화와 시민사회의 자생적 지역통화의 결합이 빛을 볼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검토 필요
- 새로운 문화생성도시 성남시의 정체성 형성과 성남시의 문화재원 확대를 위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
- 문화예술인들의 문화예술창작기회와 시민들의 문화예술향유기회가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정통화제도인 카드를 활용한 새로운 문화시장 형성
- 점차 생태환경, 의료, 복지, 건강, 먹거리 등의 공공적 사회적 노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회적 시장으로 확산

### 마. 고려사항

- 성남시민사회의 합의와 성남시의 의지 필요
- 성남시의 관련 조례 제정
- 지역사회 시민참여 유도
- 법정통화와 지역통화의 연동 모델 개발을 위한 철저한 준비





## 발표 3

— 성남 문화통화 사례 : 성남문화재단 ‘나눔라디오’ 프로젝트

오일화  
(1318해피존 ‘모람아지트’ 책임실무자)

## 1318 Happy Zone 그 안의 삶을 이야기하는 “솔”

### 1. 1318 Happy Zone 모람 AGIT는

오래전부터 공부방이라는 이름으로 저소득 지역을 중심으로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의 아동들이 올바른 성장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교육, 복지 공동체 공간이 2004년 법제화를 통해 지역아동센터로 거듭나면서 정부지원으로 운영비와 급식비를 제공받는 사회복지 시설이 되었다.

2006년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성장한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었고 아동과 청소년들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과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자 청소년들만을 위한 전용공간의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였다. 이를 위해 SK와 사단법인 부스리기 사랑나눔회가 협력기관으로 하여 청소년 공간 창출을 위한 사업협약을 하고 2006년 8월 1차 도시형을 선발하였다. 선정된 기관에는 이후 3년 동안 사업 협력자로서 청소년 전용 지역아동센터로서의 운영 모델 개발을 도우며 운영비 중 일부를 지원받아 운영하고 이후 자립하여야 한다.

1318 Happy Zone은 1318세대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공간에서 다양한 교육, 문화, 복지, 정서적 기회를 접하며 더 큰 미래의 ‘꿈’을 키워가는 행복공간으로 1318세대가 원하는 학습과 정보, 문화와 건강, 안전 그리고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담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성남시는 전체인구수 983,075명 중 10-14세 인구수 71,864명으로 7.3%, 15-19세 인구수 64,929명, 6.6%로 **13.9%의 청소년들**이며 총 교육기관 수는 149개소 중 초등학교가 59개소(39.6%), 중학교 36개소(24.2%), 고등학교 30개소(20.1%)로 전체 교육기관 중 84%를 차지하고 있다. 열악한 주거환경과 일용 노동자 밀집 지역인 성남시는 경기도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177,761명 중 **성남시가 17,062명으로 가장 많고**(2002년 경기도청 통계) 이들 수급대상자 중 70% 이상이 한부모, 조모 등의 해체가정으로 이에 따른 자녀방임, 학업중단, 정서장애 등 심각한 청소년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또한 학업중단 청소년은 중학생 556명, 인문계고교 491명, 실업계고교 242명으로 전체적으로 **성남시(1,289명)** 경기도의 31개 시·군중에서 중퇴율도 제일 높다.(경기도 교육청 통계. 2003년)

## ■ 문화정책 대화모임

성남시에는 지역아동센터로 등록된 기관수가 약 44곳이며 한 기관 당 30명 정도의 일일 이용아동수로 추산하더라도 약 1300여명의 아동, 청소년들이 지역아동센터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중 청소년들만을 위한 전용공간은 매우 미흡한 현실에서 청소년기 특성에 맞는 교육과 상담, 진로지도 및 문화활동 등 복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돕는 전용공간의 필요성을 매우 시급하다.

성남에서는 학교밖 청소년 배움공동체 디딤돌이 이 사업에 응모하여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수정구 태평4동에 아담한 동지를 새롭게 구축하여 지난 10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다.

‘1318 Happy Zone 모람 AGIT’는 1318세대 중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상실감을 극복하고 자아정체감 형성의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돕는 지원활동을 통해 학업중단, 학교 부적응, 가출, 방임 등 위기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보다 편안하고 자유롭게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청소년 공간이다. 모람AGIT는 자유와 꿈을 갖고 싶은 1318세대라면 누구나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밖 청소년도 함께) 행복과 나눔을 담고 싶은 언제나 참여할 수 있도록(오전10시 -오후 9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상근 교사 3인과 자원교사 1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정고시를 위한 기초학습 지원과 각 영역별 교과 지원 및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 과 급식사업 의료사업 인턴쉽 및 각종 문화 동아리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또한 격주로 운영되고 있는 열린카페를 통해 1318세대들의 스스로가 만드는 문화공간으로 문화 창조의 경험을 제공하고 능력을 키워나가는 장으로서 활용되도록 하고 있다.(먹거리, 장터, 영화관람, 각종 소규모 문화행사, 보드 게임 등)

## 2. 모람 AGIT에서 통화권에 대한 생각

학업중단, 방임, 가출 등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 대다수는 가정, 학교에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교육환경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교육,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하게는 서로 함께 생활하는 ‘살아가는 교육’을 하는 생활교육 공동체로서의 성격을 더 주요한 활동의 하나로 이해해야 한다. 단순히 공간을 지역사회로부터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만들고 이끌어가는 자체가 자신의 성장을 위해 스스로가 해야 하는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삶의 과정이며 타인과 관계 맺는 내용과 방식을 체험하는 공간으로 인식하도록 돕는 교육의 장으로 이해되도록 해야 한다.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으며 또한 누군가를 돕는 가치를 나눔으로써 자신의 정당한 행위를 배우고 익히는 과정으로 예서의 교육과 구성원간의 합의와 공간에서 지속가능한 가치를 마련하고 보존하며 상호 소통 하기 위해 통화권을 이용한 관계맺기 방식이 유연히 성남문화재단의 나눔라디오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나눔통장을 통해 그 운영방식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 공동체 가치 형성을 위한 통화
- 나눔이 일어나는 통화
- 스스로 가치를 생산하는 통화

### 3. 나눔 라디오 수업과 나눔통장

나눔라디오 프로그램은 성남문화재단이 문화통화의 개념을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한 교육프로그램으로 공모사업을 통해 진행되었다. 에이스벤처라(기분좋은 트랜드하우스 부설 연구소)와 함께 1318 Happy Zone 모람AGIT에서 지역 청소년들이 자신의 의견을 담아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동아리 활동을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교육 프로그램인 동시에 지역통화시스템 도입을 위해 마련되었다.

나눔라디오 프로그램 첫 시작에서 나눔통장(종이통장)에 대한 설명과 함께 단위를 새롭게 만들기 위한 논의를 통해 아이들은 ‘술’을 만들어 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라는 뜻의 줄임인 ‘술’, 소리는 혼자 가질 수 없고 함께 많은 사람이 함께 소유하는 의미를 담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소중한 소리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나누는 우리만의 화폐가 되었다.

#### ▶ 통장 운영방식에 대한 설명

- 최소의 가치 기준은 ‘한 술’로 정한다.
- 최초 중앙은행(교사)에서 각각에게 삼십 술을 제공하면 입금내역에 ‘중앙은행에서 삼십 술 입금’이라고 적는다.

## ■ 문화정책 대화모임

- 내가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출금내역에, 도움을 준 것은 입금내역에 기록을 하게 된다. 그리고 거래 이유를 반드시 적어준다.
- 수업을 하면서 도움 받은 것이 있다면 서로 이야기해보고 합의가 된다면 함께 기록을 하게 된다.
- 오늘의 거래를 보고 이를 통해 바뀌었거나 생각나는 점을 ‘나눔 느낌 란’에 적어주면 된다.
- 이후 이 가치가 모이게 되면 라디오 방송국 개국을 위한 자산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교사 : 오늘 친구에게 받은 내용이 기억나는 사람?

생쥐 : 내가 녹음 할 때 물꼬가 옆에서 음악을 틀어줬어요, 가치를 제공해 주고 싶어요.

교사 : 생쥐가 오늘 처음 온 방울이에게 ‘우리 친구하자’ 라며 반갑게 맞아주었다. 이러한 것에 고마움을 느낀다면 가치를 제공할 수 있지.

방울 : 생쥐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두 솔을 주고 싶어요.

생쥐 : 에이 너무 적은 것 아니야?

교사 : 가치의 표시를 너무 크게 잡는다면 인플레이션이 될 수도 있어.

햇살 : 이것은 라디오 수업할 때만 쓰는가요?

교사 : 당장은 수업 내에서만 거래를 하지만 점차 확대해 나갈 거야.

아이들은 부지런히 서로에게 가치를 나누고 나누어 받으며 수업을 정리한다. 수업에서 배우는 교육 내용에 대한 관심에서 서로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담아두는 노력이 점점 늘어나면서 구성원간의 존중할 만한 문화가치를 소중하게 지켜가는 모습이 나눔 라디오 수업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될 것이다.

## 4. 1318 Happy Zone 모람 AGIT 삶을 나누는 통화

나눔라디오 수업에서의 통화를 일상의 관계에서 어떻게 나누고 더 많은 나눔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 일상의 관계로 통화를 확대해 보았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격려하는 것과 밥상공동체를 위해 힘을 모으는 것에서부터 좀 더 구성원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위해 종례시간을 나눔통장을 기록하면서 하루를 정리하기로 하였다.

우리들이 나누어 가진 가치와 나눔 방식을 살펴보면

\*\* 교육 공간으로서 나누는 가치

-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가치
- 보조 도우미로 수업에 도움을 준 가치
- 재미있는 생각과 의견으로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 준 가치
- 도움이 되도록 수업을 이끌어준 교사에 대한 감사의 가치
- 너무 소란스러워 수업에 방해가 된 가치
- 문화활동 등 공동이 함께 나누어 활동하는 가치 등

\*\*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 가족으로서 나누는 가치

- 식사 도우미나, 간식 도우미 등 다수를 위해 봉사한 가치
- 자발적인 의지를 갖고 여러 사람을 위해 노동한 가치
- 듣기 싫은 욕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한 가치
- 공공의 시설을 개인의 목적을 위해 사용한 가치
-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가치 등

\*\* 위기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가치

- 응급 의료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가치
- 차비 보조 등 교육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립의 가치
- 의복, 목욕, 빨래 등 응급 지원으로 도움을 받은 가치 등

\*\* 공동체성 향상을 위해 관계맺는 가치

- 웃으며 반갑게 인사해준 가치
- 아픈데 편안하게 설 수 있게 해준 가치
- 밥을 맛있게 준비해준 고마운 이에 대한 가치
- 지각, 결석 등 함께 하는 질서를 지켜가고자 하는 가치

나눔통장을 기록하는 시간은 나눔을 야기하면서 모두가 동의하고 수긍하는 거래가 일어 나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이었다.

“ 샘.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술’ 안주나요?”

“ 나 오늘 욕 한 번도 안 썼는데 ‘술’ 주세요”

“ ‘술’ 드릴게요. 오늘 교육하시느라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 Ⅰ 문화정책 대화모임

때로는 그냥 달라고 때를 쓰는 아이도 있으며 나 줬는데 너 나한테 줄거 없냐고 하면서 맞교환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예쁘게 하고 온 친구에게 ‘기분이다면서’ 자신의 감정을 가치로 전환해서 나누기도 하고 도우미한다고 애쓴 친구의 모습에 격려를 보내는 맘을 담아 나누기도 했다. 이런 생활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따뜻한 공동체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무엇으로든지 합의하면 나눌 수 있으며 ‘솔’을 벌어들이고 사용하는 재미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었다.

이는 자신들의 언어를 있는 그대로 답을 수 있는 종이통장이 가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난 거래 일지를 읽으며 잃어버린 관계의 소중함을 재확인하는 일이 되기도 한다.

감정과 정서를 나누는 경험에서 설거지 도우미, 이삿짐 돕기, 노래 CD굽기 등 노동을 나누어야 하는 일거리에서는 아이들이 좀 더 많은 ‘솔’을 사용하려고 했다. 지나치게 많은 ‘솔’을 요구하는 친구와의 실랑이나 심부름을 자꾸 시킴으로써 줄어 든 ‘솔’을 다시 벌어들이기 위해 무엇인가 할 거리를 찾는 모습은 공동체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체험의 과정이었으며 공동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 노력한 행동에 대한 적절한 가치를 만들어 가는 문화 생산의 과정이라고 생각된다.

## 5. ‘솔’이 자라는 과정

1318 Happy Zone 모람 AGIT의 학생으로 등록하고 모람AGIT의 활동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할 것을 확인하는 절차로 처음 나눔 통장으로 30솔을 부여하는 일은 이제 자연스러운 과정이 되었다.(나눔라디오 수업으로부터 시작된)

이 30솔의 의미는 행복을 위한 자립기금의 성격을 갖는다. 아이들은 현재 교육비를 내지 않는 대신 사회로부터 제공되는 교육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교환을 통해 수혜의 대상에서 생산의 주체로 자존감을 찾는 효과가 있다.

### \* 중앙은행 - 공동통장을 마련하고 조합의 형식으로 발전

라디오 수업 과정에서 USB가 분실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모두 긴급하게 회의를 진행했으며 우리들의 공간에서 우리들의 위상이 심각하게 손상되는 일이라는 점에서 교사, 학생 모두가 함께 책임을 지기 위해 각자 자신의 ‘솔’을 기부하고 이를 모람AGIT에서 환전하여 분실된 물건을 보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계기로 우리 ‘솔’이 ‘돈’이 될 수 있다는 경험을 하였고 격주로 열리는 ‘열린카페’에서 ‘솔’이 없는 외부인이 ‘돈’을 ‘솔’로 교환해서 참여하는 일과 여기서 벌어들인 ‘돈’을 다시 ‘솔’로 중앙은행에 입금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조합의 형식을 가진 ‘공동통장’이 마련되었으며 지각, 결석 등 개인이 나누어 가지기 어려운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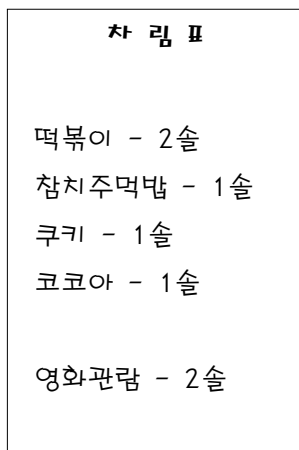


치는 중앙은행에 입금하기로 결정하였다.

라디오 동아리 활동을 위해 구입한 기자재, 밴드 동아리를 위해 구입하게 된 악기들, 비용이 들어가는 체험활동, 전문인과 결합된 교육활동 등 일정하게 비용이 필요한 항목들이 점차 공동통장의 ‘솔’로 지불되면서 공간의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한 민주적 운영이 그 틀을 갖추어 가게 되었다.

**\* 쿠폰으로 유통되는 ‘솔’**

열린카페를 운영하는 준비위원들은 그날의 소득의 10%를 ‘솔’로 지불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먹거리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나눔통장에서 ‘솔’을 출금하여 쿠폰으로 바꿔 사용하게 되어 있다. 남은 쿠폰은 다시 ‘솔’로 교환하여 입금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먹거리 차림표



▲ 아이들이 만든 쿠폰

**\* 현실적인 필요성에 의해 환전되는 ‘솔’**

가출, 방임 등의 문제 상황으로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벌게 된 ‘솔’은 매우 긴급한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소중하게 사용되어졌다.

차비가 없어 걸어와야 했던 아이들은 이제 ‘솔’로 교통비 항목으로 현금과 교환한다. 1솔이 어느 정도의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한지에 대해 토론하던 회의 시간에서 1솔에 500원 정도의 가치로 지불하자고 결정하자 열린 카페에서 사용된 가치에 대해 수정해야 한다는 나름의 기준들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일상의 생활에서 벌어지는 나눔이 현금이라는 기준으로 교환될 경우, 환하게 웃어 주어 고마웠다는 가치를 어떻게 현금화할 것인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고민이 되었다.

이에 아이들과 합의 한 내용은 교육활동이나 공동의 이익이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 Ⅰ 문화정책 대화모임

위해 꼭 현금으로 교환할 필요성이 있는 항에서만 환전하기로 약속을 정하고 이를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지불하기로 결정하였다.

### \* 나눔이 일어나지 않는 ‘술’

나누어 주기보다 나누어 받기를 더 많이 원해 열심히 ‘술’을 모은 친구는 아이들에게 더 이상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술’을 얼마나 많이 모았는가 보다 거래 내용이 얼마나 많은가가 더 중요한 가치인지를 인식하도록 도와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친구에게는 일정 기간이 경과해도 예를 들어 1주일동안 한 번도 나누어주고 받은 거래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발생되도록 합의하였다.

다른 면에서 ‘술’을 많이 가진 친구는 마이너스가 많은 친구들에게 “오늘 너 귀여운 것 많이 해서 내가 준다.”, “빌려줄게, 나중에 돌려줘.” 넉넉한 인심을 쓰기도 했다.

### \*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개입

종례 시간에는 하루를 정리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형성이 얼마나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며 자신에게 유용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도록 교사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집단속에서 존중되는 가치와 지속가능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학습하는 시간이 되었으며 신입 등록 학생에게는 문화통화 교육의 장이 되기도 하였다.

통장에 직접 기입하는 약간의 소란스러움이 있지만 서로 간에 합의되지 않은 거래를 기입하는 경우에도 (“형이 그냥 가져갔어요.”) 공개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 상황이 발생되지 않으며 언제든지 수정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돌려줄게”)

교사는 보다 교육적인 거래 내용이 만들어 지도록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 이런 면에서 1318 Happy Zone 모람 AGIT는 공간 자체가 가진 목적이 교육의 공간이며 나눔의 공간이며 공동체 공간이기 때문에 문화통화를 운영하는 정체성에 크게 손상될 만한 거래는 발생되지 않고 있다.

## 6. 이후 우리는 무엇으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을까.

지역통화는 경제구조에서 소외된 청소년들이 특히 학교밖 청소년이나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이 자신이 가진 능력을 통해 사회와 합의할 수 있는 가치로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스스로의 존재감을 정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1318 Happy Zone 모람 AGIT에는 교육을 받기 위해 지불하는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 참여하는 자발성으로 지불받은 '술'은 자신의 욕구와 결합한 교육활동이 되도록 강제하는 역할을 가져다주었다. 이는 소외된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주는 지역통화로서 기능하도록 도왔으며 교육을 통해 학습된 능력을 통해 다시 지역사회로 환원할 수 있는 교환의 장이 발생하여 청소년은 지역사회에게 지역사회는 청소년에게 나눔이 일어나는 교육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문화적인 면에서 늘 소외된 아이들에게 문화를 생산하는 주체로서의 능력과 경험을 쌓아 가는데도 역시 큰 도움을 주었으며 보다 확대되고 활성화된 지역통화 시스템 마련을 위해 우리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다.

- 어디서든지 청소년들이 자신의 욕구에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지역통화 (강의료 지불, 강사 섭외, 교재 구입, 장소 사용 등)
- 자신이 가진 문화생산의 능력으로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사회 연계방안 (지역 자원봉사활동, 문화행사 기획 및 진행 등)
- 문화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네트워크 (관람료 할인 등)
- 지역사회 안전망을 통한 위기 지원 시스템(의료, 의약, 보건, 위생, 상담 등)
- 다양한 거래내용의 기준표를 마련하는 방안

1318 Happy Zone 모람 AGIT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술'의 거래는 교육적인 관계를 전제로 서로 간에 합의하고 출발한 비교적 작은 터전에서 이루어진 민주적인 질서와 공동체의 가치 나눔의 교육통화라고 할 수 있다.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라는 개념과 살아가기 위해 서로가 협의하고 합의해야하는 어려운 과정을 보다 쉽게 체험하고 익히면서 건강한 교육공동체를 형성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끝으로 성남문화재단 문화사업국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문화정책 대화모임

성남문화재단 자료집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Report

성남문화통화 도입을 위한 『문화정책 대화모임』

---

발행일 : 2007년 1월 31일

발행인 : 이대엽, 이종덕

발행처 : 성남문화재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757번지 성남아트센터

전화 031-783-8124(문화기획부) 팩스 031-783-8140

[www.sncf.or.kr](http://www.sncf.or.kr)

©성남문화재단

---



## 성남문화통화도입을 위한 문화정책 대화모임 대화록

정리\_성남문화재단

사회 | 박승현



오늘은 편안하게 참석하신 분들이 모두 한 말씀씩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쟁점을 잡아서 격렬하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자리가 굉장히 오랜 시간을 두고 무르익어서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충분하게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 아직은 격의 없이 충분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런 풍토는 마련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계기들이 몇 차례 있게 되면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문화통화 도입을 위한 3가지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전효관 교수로부터 전체적인 도입의 취지와 방향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다음으로 1318해피존 오일화 선생님께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고, 마지막으로 성남이라고 하는 하나의 구체적인 지역에서 향후 어떻게 모델화시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모델(안)을 강원재 부센터장에게 들었습니다. 아마도 들으시면서 ‘도대체 문화통화가 뭐냐?’ 라고 하는 질문에서 시작해서 ‘실제로 적용시킬 때 어떤 문제 내지는 어떤 장점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현재 자원봉사 센터에서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분, 주민협동조합 차원에서 아이들과 장터를 열면서 그 속에서 교환되는 부분,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성남지역에서 한두 군데 정도는 이러한 시도들을 하려고 예전부터 준비를 했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아마도 다양한 분

야에서 지역통화에 대한 시도들이 전체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시도들을 이런 자리에서 한 번 더 끄집어내 보고, 이것이 성남 전체 시민들이 서로가 나눌 수 있는 구체적인 방도가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 하는 일들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편하게 시작을 해 보죠. 말씀하실 때는 소속과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오늘 말씀하신 것들은 속기로 전부 기록되어서 끝나고 나면 오늘 발제한 내용과 함께 대화록을 만들려고 합니다. 대화록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발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돌리는 주소록은 대화록의 정확한 발송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소속, 직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은 지금부터 6시까지 1시간 30분 정도 대화를 갖도록 하고, 6시가 끝나자마자 간단한 식사와 와인을 준비해서 이 자리에서 못 다한 이야기들은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부터 받겠습니다.

성남문화만들기 | **장동혁**   안녕하세요, 성남문화만들기에 장동혁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만 여쭙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문화통화는 것이 유통되려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주민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문화통화를 어떻게 해야 취득하게 되는지를 여쭙보겠습니다. 일단 그것 먼저 여쭙보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라도 대답을 해 주셔도 괜찮고, 아까 모람아지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대여개념인지 주는 개념인지 모르겠는데 30술을 준다고 했는데, 일반 주민들한테 이것을 그냥 무상으로 줄 수는 없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취득하게 되는 경위라든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것을 내가 직접 돈을 주고 가서 ‘산다’ 라고 하면 차라리 현찰로 주고 받는 것이 편한 것이니까 사실 문화통화라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것을 일반 주민들이 취득하게 되는지 일단 그것을 먼저 알고 싶습니다.

서울시대안교육센터 | **강원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델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3가지 모델들의 주체들이 다르죠. 첫 번째 같은 경우 성남문화재단에 재원이 있는 겁니다. 모람아지트 사례하고 비슷한 것인데, 모람아지트에서도 이 ‘술’ 이란 것을 현금으로 교환해 줄 때 그 현금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정부기금과 SK기금이란 것이 있고, 이것을 ‘술’ 로 대체해 주는 것인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남문화재단에 일정기금이 있고 이것을 통화로 대체를 해서 지급을 해 주는 겁니다.

성남문화만들기 | **장동혁** 그렇다면 일반 주민들이 문화통화를 얻으려면 가령 내가 현금을 주고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서울시대안교육센터 | **강원재** 아닙니다. 통화가 나가면 그 통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남문화만들기 | **장동혁** 그러니까 그 통화를 주민들이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것입니다.

서울시대안교육센터 | **강원재** 통화는 온라인시스템에서 거래를 하게 됩니다.

성남문화원 | **김정진** 주민이 문화통화를 얻으려면 통화발행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발행기관이 지금 아직은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성남문화만들기 | **장동혁** 통화발행기간이 있든 무엇이 있든지, 제가 문화통화를 가지고 있어야 어딘가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성남문화원 | **김정진** 그러니까 그 통화를 만들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 서현역 번영회라든지 성남예총이라든지 이런 발행하는 기관이 있어야 그 통화가 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문화통화를 발행하는 기관을 ‘민간이나, 재단이 주도로 하느냐’ 그 논의를 여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발행기관이 있어야만 문화통화가 ‘술’ 이 될지 무슨 이름이 될지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성남문화만들기 | **장동혁** 저는 발행기간을 여쭙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 주민이 어떻게 문화통화를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한 것입니다.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 **전호관**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아마 2모델 같은 것을 염두에 두시면 나올 수 있는 질문인데, 예를 들면 민간중심의 ‘마을 만들기’ 나 ‘지역 만들기’ 사업 같은 것들과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에도 기금은 뭐가 있냐하면,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는 문화마을 만들기, 그 다음에 동네 축제 만들기, 이런 성남시 문화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사업자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한도액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한도액 안에서 주민 조직이 발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돈의 소스는 문화재단의 사업내역에 잡혀있는 예산을 이용하여 시작하는 것이 기본적인 1, 2모델의 출발점입니다.



정리해 보면, A마을의 통화를 관리하는 곳에서 ‘동네마을 만들기’ 에 5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하는 방식이 통화로 지급이 되면 그 안에서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 기획하는 사람, 예술가, 그 다음에 재료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것들에서 통화



라는 것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동네 단위에 500만원이라는 통화단위를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것이 설정되는 것입니다.

성남문화만들기 | **장동혁** 그러면 그것을 처음에 사용하는 사람들은 일단 이 통화를 발행하는 근접에 있는 사람들부터 사용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이런 통화가 넘어갈 때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네요?

사회 | **박승현** 그 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문화통화에 대한 전제가 아직은 공유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지역통화는 공동체 또는 커뮤니티라고 하는 한정된 형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쉽게 접근을 하자면, 원래 지역통화의 개념은 누구나 스스로 통화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사례로 들은 1318해피존을 이용하는 청소년이 15명 있다면, 해피존의 15명은 자기가 스스로 '술' 을 발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술' 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내 술 줄게' , '내가 10술 줄게' 무조건 자기가 스스로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한하게 발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역통화는 개인이 발행의 주체가 되어 무한하게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누구한테 고마움을 받았다면, 그 고마움 받은 것을 '아, 내가 정말 고마움을 받았으니까 10술 줄게' 라고 일단은 환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집어넣지 않고, 그것이 돈과 '같다' 는 개념을 집어넣지 않고 누구나 발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커뮤니티 내에서 지역통화가 자연스럽게 자기가 발행한 것과 쓴 것의 ±개념을 서로 소통시키면서 지역통화를 자기 것으로 축적하거나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1318해피존\_모람아지트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으로 기자재를 산다든지 현금화시키는 계기로 접목을 시켜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1318해피존\_모람아지트의 경우가 사실은 지역통화라고 하는 원래의 개념에서 출발하여 자연스럽게 환전에까지 발전하게 된 유형입니다.

질문하신 것에 또 하나의 유형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 이것은 하나의 가상입니다. 만약 성남문화재단이 문화클럽에게 문화통화를 쓸 수 있게 하도록 하고, 어떤 기준을 마련하여 신청하는 문화클럽에게 '300문화통화를 지급해 주겠다' 라고 해서 통장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문화클럽은 통장에 들어있는 300문화통화를 가지고 문화공간을 빌린다든지 어떤 발표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화클럽의 문화활동을 활성화시키는데 쓸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 말한 것은 개인이 발행할 수 있고, 누구나 발행할 수 있는 지역통화의 원래 취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발행기관이 따로 있어서 기준을 정해 놓고 한정된 사람들에게 이것을 먼저 주면서 제

한된 테두리 안에서 쓰게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결국 지역통화를 활용한 문화통화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성남문화만들기 | **장동혁** 방식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 단체에서 아트센터를 빌려 쓰면서 문화통화를 아트센터에 지불하고 실제로 공연을 합니다. 공연을 보러 오는 사람들은 문화통화를 가지고 와서 공연을 관람하는데, 보러오는 사람은 그 통화를 어떻게 획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문화재단에서 한 단체에 300만 문화통화를 지원해서 단체가 사용할 수 있게 했을 때 이것이 퍼져나가는 속도를 추측해 보았을 때, 과연 일반주민들이 문화통화를 가지고 공연장으로 직접 보러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몇 년이 될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일반주민들한테 돌아오는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 그것을 여쭙보고 싶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환전해서 문화통화를 바꾼다던가, 아까 모람아지트 같은 경우는 떡볶이도 팔고 한 술에 떡볶이 하나고 비빔밥도 팔고 하는데 거기서 일반인들이 가서 사려면 모람아지트에 가서 현금을 솔로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민은 현금으로 지역통화를 바꿔야 통화를 시작할 수 있고, 떡볶이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화통화라는 것으로 내가 문화관람을 하려고 하면 내가 현금 1만원을 주고 문화통화라는 것을 1장 사서 그것을 다시 보러와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기간이라는 것도 일반한테 그냥 다 뉘출 수도 없는 것이고, 현금 주고 바꾸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문화통화권 한 장이 1만원의 가치가 있으면 현찰 주고 1만원을 내면 9500에 한 장을 준다거나 예를 들면 도서상품권처럼 하는 것 자체도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랬을 경우 전체적으로 문화통화를 발행의미는 무엇일까 궁금해집니다.

일종의 중산층 이상은 문화를 많이 즐기는데, 아까 성남의 본시가지와 신시가지, 판교 말씀을 하시면서 예를 드셨는데, 사실 본시가지인 중원구나 수정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인 여건이 안 돼서 여유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거나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시간적인 여유가 안 돼서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조차도 이런 것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럴 때 성남시 전체가 골고루 지역통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통의 범위가 생긴다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것을 현금으로 바꾼다는 것도 의미가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가 문화통화를 왜 유통시켜야 되고 왜 해야 되는 것이냐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 **전효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측 하건데, 지금 그 질문이 나오시는 배경에는 주민들이 통화를 가지고 거래하는 어떤 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전에 하자센터에서 근무할 때 서울시 청소년과에서 ‘청소년 문화카드 결제발급 연구’ 라는 것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SK와 같은 기업에서 나오는 카드와 유사한 청소년 문화카드를 만들어 아이들이 세종문화회관을 가면 공연을 싸게 보는 등 문화활동을 촉진시키자 해서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충 추산을 해 보니까 대략 3천억원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런데 SK와 같은 기업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통화료에 붙여서 그 돈을 빼서 서비스로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행정에서 3천억을 빼서 청소년의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해 할인혜택을 주자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연구를 하다가 조금씩 줄어들더니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문화기관인 세종문화회관 등의 문화시설 몇몇 곳에서 ‘할인권을 주자’ 이렇게 축소가 됐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을 성남시 차원에서 통화를 발행하게 하는 일은 굉장히 거대한 시스템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와 같은 모델을 개발하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예를 들어 지역단위의 어떤 주체가 가능하다면 지역단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는 각 직능별 사람들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예를 들면 생협을 하시는 분, 교육을 하시는 분, 문화를 하시는 분들이 지역 내에 어린이 교육문제를 갖고 굉장히 저렴한 서비스망 같은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남문화재단에서 지역단위의 어떤 주체가 있고, 서비스망 같은 것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서 동네축제를 만드는 일에 5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500만원이라는 것이 지역에서 거래될 수 있는 통화의 액수가 만들어지면서 지역 내 교환활동을 굉장히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점들이 성남 내에 여러 군데에서 만들어진다면 지역적으로 보면 무슨 효과가 있을까. 지금 이 3모델도 마찬가지로 2모델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전남대에 있는데 전남대에서 월급을 받지만 돈을 쓰는 곳은 서울에서 많이 씩니다. 집이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에 와서 아파트 값을 내고, 친구들과 서울에서 술도 먹고...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지역 내에 연계망 같은 것이 구축되면 지역 내 자원이 그 지역 내에 머물게 됩니다.

예를 들어 3모델로 말씀드리면, 3모델의 가장 큰 효과는 성남 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성남 내에서 쓰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것에 관한 인센티브 설계를 하면, 예를 들면 주민의 입장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돈을 받았는데 굳이 예술의 전당을 가느니 성남아트센터를 가자’ 이런 선택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축소해서 지역으로 오면 지역단위에서 서로 간에 있는 지역 내 잠재자원들을 엄청나게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무슨 미술교육을 받는데 10만원을 내고 홍선생 미술학원을 보내지만, 지역내 주부들의 자원 풀(pool)만 발굴을 해도 지역내 미술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상호부조시스템이라는 것이 지역 내에서 설계가 되면서 지역 내의 자원이 유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집 부모가 내집 아이에게 미술교육을 시켜주면 나는 그 아이에게 병원치료를 해 줄 수 있다든지 먹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든지 이런 식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을 설계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주민들이 문화참여를 하기 위해 오페라하우스에 와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문제에 부딪치느냐 하면, 성남시가 오페라하우스를 무료로 하면서 시민들한테 무료쿠폰을 주는 것과 똑같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물론 정책적으로 가능하면 좋겠지만 이것은 정말 막대한 비용을 소요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역이나 이런 근거지 단위로 상호부조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데까지 만드는 것이 2모델에서 강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평4동에 사는 주민들이 축제 하나를 만들어보는

것하고 오페라하우스에서 공연을 보는 것하고 이 문제는 동일한 선상에 있는 문제이지만 사실은 문제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 2모델을 발제하면서 마을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설정해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마을위원회가 그런 기능을 하는 단위들이 만들어지면 사실이 이것이 활성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모델의 고민 중에 하나는 지역 내 주체든 동네 주체든 이런 것들과 연계가 되지 않으면 사실 이것은 시나 문화재단의 의지만으로 만들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2모델을 시작할 때 이미 이런 사전학습경험이 있는 몇 개의 시범동네에서 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실 통화를 도입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왜냐하면 법정화폐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데 아무리 지역통화 본래 의미와는 떨어진 것이라도 만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이 되면서 그 성과들이 개개인들에게 내면화되고 공유되는 과정을 거쳐서 조금씩 확대해 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문화향수권을 확 높이고, 성남에 사는 모든 주민들이 다 통화자에 참여한다는 것은 단기적인 목표설정에서는 조금 고려하고 있지 않은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원대학교 | **김용익**



경원대학교 김용익입니다.

저도 관심은 많지만 이해가 잘 안 되고 있고, 전에도 자료를 여러 번 받아봤지만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전효관 교수님 말씀을 듣고 조금 전에 질문하신 것하고 보면 제 나름대로 이해를 했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통화라는 단어하고 문화통화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두 단어는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전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역통화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금 질문하시는 것은 문화통화를 말씀하시는데, 문화통화는 좀 더 단위가 크고 진짜 오페라하우스의 모든 공연을 보는데 쓸 수 있는 것이라면, 지역통화는 그런 것은 아니고 지역경제 안에서, 작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쿠폰식이라고 하나요, 품앗이라고 하나요, 자급자족식으로 돌아가자는 것 아닙니까, 돈 대신. 그래서 지금 ‘지역통화’, ‘문화통화’ 이 두 단어가 개념이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그것을 혼용해서 쓰는데서 오는 혼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를 한 바는 그런데, 맞습니까?

서울시대안교육센터 | **강원재**

우선 1모델 갖은 경우에는 첫 번째 말씀하신 문화  
통화 모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상정하고  
있는 2모델은 지역통화 모델입니다. 실제 상호부조와 지역공동체들, 거기에서 실제 발행  
주체들도 그 지역민들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1모델은 문화재단에서 일정 정도의  
기금을 마련하고 그 기금을 가지고 통화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성남문화만들기 | **장동혁**

제가 한 번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같은 질  
문을 드리는데, 전체적으로 1, 2, 3모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것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되는지 잘 모  
르겠지만,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흐름이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돈을 쓰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일을 해서 월급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돈을 누구로부터 받습니  
다. 문화통화는 우리가 일을 해서 받을 수 있다가거나 예를 들면 아트센터에서 공연을 하는  
데 내가 자원봉사를 해서 돈 대신 문화통화를 받는다가, 아니면 어디 가서 내가 자원봉  
사를 하면서 탄천에 가서 휴지 몇 장을 주워서 문화통화를 받는다가 이런 개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 사람도 우리같이 문화통화를 직접 사용하고 유통을  
시킬 수 있는 이 사람들이 문화통화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여쭙보  
겠습니다. 처음 드린 질문입니다.

서울시대안교육센터 | **강원재**

그 이야기가 1모델과 2모델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데, 1모델은 문화재단에서 주어집니다. 그런데 시민들까지  
가기는 시간이 굉장히 걸릴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하고, 아까  
처음에 1모델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문화클럽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통화다. 그래서 문화클럽 활  
동을 활성화하는 데까지만 가면 되는 것이 한계로 주어지는  
통화가 되는 것입니다. 2모델로 갔을 때는 이것은 지역통화  
모델, 이것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모델입니다. 주  
민들이 자체적으로 발행하고 상호부조를 하고 지역에서 봉사  
활동들을 하고 거기에서 통화를 받고, 그런데 이것 역시도  
초기에는 지역범위들을 좁혀가야 됩니다. 그래야 변수들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 안에서 통용되도록 주민들 스스로가 통장을 만들고, 그  
통장 안에 기입을 하고, 그 기입된 것을 가지고 하는 일반적인 지역통화의 방식들을 온라  
인으로만 옮겨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은 처음에 0원에서 시작을 합니다. 0원  
에서 시작을 하는데, 제가 만약 선생님한테 어떤 봉사활동을 해서 어깨를 주물러줍니다. 그



려면 선생님은 저한테 1만 통화를 저한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1만 통화가 되고 저는 +1만 통화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 +1만 통화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거죠.

다른 데 가서 어깨 좀 주물러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어깨 주무름을 받고 1만 통화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0통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은 -1만 통화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마이너스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뢰기반이기 때문에 만약에 마이너스가 100만 통화 된 사람한테 계속해서 통화를 지급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비스 거래를 맺기 어려워질 겁니다. 선생님하고 거래하는 것을 꺼려하겠죠. 그러나 선생님은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 플러스로 만들어야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서로간의 신뢰와 어떤 상호부조를 촉진하는 것들이 2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 | **박승현** 여러분께 기회를 드리기 위해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조은주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성남시자원봉사센터 | **조은주**



강원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3모델이 저희 성남시자원봉사센터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과 비슷한 구조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작년부터 모임을 가져서 이 문화통화라는 개념이해부터 어떻게 해야 될 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 자신은 성남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아무런 보상 없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었고, 문화재단에서 그 모임에 오라고 해서 갔는데 통화를 통해서 어떤 나눔에 대한 대가를 서로 간에 지불하자, 일단 어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서로간에 대가를 지불하자, 이런 통화를 통해서 대가를 지불하자 라는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저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자원봉사도 있는데 왜 문화통화라는 것도 다른 개념으로 만들어갈까 라는 어떤 의문도 상당히 많이 가졌었습니다. 일단 저희 자원봉사 분야에서도 사람의 이기적인 동기부여를 제공하지 않으면 자원봉사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많이 부각되고 있어서 어떤 인정이나 보상 측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인정이나 보상측면에 통화가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편하실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남과 나눔을 기본전제로 이 통화를 바라보셔야 되지, 어떤 경제관념이나 경제이론에 맞춰서 이 통화이론을 해석하시고 이해하려고 하시면 전혀 이해가 안 되실겁니다.



제가 이해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나눔을 기본전제로 두셔야 됩니다. 나눔을 기본전제로 다른 단체간에 서로 나눌 수 있는 것 먼저 찾고 그 교환의 가치를 A와 B가 정의해 나가는 것이 통화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말씀하신 것 같은데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기본적으로 어떤 문화를 통해서, 문화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나눔의 운동에 같이 동참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계를 계속 형성하고자 하시는 어떤 시민이나 단체든 다 이 문화통화를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문화로 어떤 통화를 해 보자’, 구체적인 사례를 여기서부터 시작하실 수 있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모임 있을 때 노재천 국장님이나 박승현 부장님께서 항상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이것이 어떠한 합의에 의해서 구성이 되고 시행이 된다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보고, 지금 너무 시스템적으로 다가가서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너무 얽매어서 본래의 취지나 이런 것들이 조금 퇴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남문화원 | **김정진**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자꾸 논의의 구조와 원칙이 안정해진 것 같습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이 지역 통화라는 개념하고 문화통화라는 개념하고의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전제에 말씀드렸던 상가번영회라든지 재래시장연합회라든지 생협이라든지 이런 굴지의 통화개념은 우리가 지역 통화로 보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논의를 하려고 했던 것은 ‘성남문화통화에 과연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느냐’ 그 논의를 좀더 구체화하는 이야기입니다.

참가자분들께서 오늘 처음 오셔서 사실 통화에 대한 개념이 조금 헷갈리시는 것 같아서, 지역통화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큰 타입들로 했던 것들은 제외를 해 놓고, 문화적인 부분에서의 통화에 대한 얘기를 이끌어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회 | **박승현**

성남문화연대 | **하동근**

다음 하동근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통화가 사용되는 곳이 바로 시장일텐데, 시장과 통화를 분리하다보니까 상당한 오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시장이 분명히 있고 지역시장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시장과 지역시장은 법정통화



가 지배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시장에 왜곡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장은 최고의 상품이 유통되는 곳이고, 최고가 아니면 유지되지 못합니다. 법정통화로 가치를 매기다 보니까 지역문화시장에서도 지역성이라든지 지역을 소재로 하는 문화상품은 유통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역문화시장을 지배하는 법정통화를 좀 유보시키고 대안적 통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1318해피존에서 통화가 됐든, 성남지역에 지역이나 문화통화가 됐든 간에 분명히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제를 보니까 ‘어떤 모델이 좋냐’ 이런 질의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를 길게 할 생각입니다.

저는 이것이 문화통화와 지역통화를 도입하는 것이 시장이 사회를 지배하던 구조를 사회가 시장을 지배하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법정통화, 세계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시장이 우리의 일상까지를 지배합니다. 그런데 이 통화를 바꿈으로써 시장의 성격을 바꿔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상품만 통용되고 세계 최고만 공연되는 이런 지역문화시장에 지역성을 갖는 문화상품도 유통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면 세계통화가 지배하는 시장질서가 아니라 지역문화통화가 지배하는 질서라야 공동체성을 갖는 문화상품도 아트센터에서 공연될 수 있는 지역의 시장을 화폐 하나 바꿈으로써 시장구조를 완전히 바꿔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통화의 신용창출을 1318해피존\_모람아지트에서는 누가 하느냐 하면 선생님들과 토론을 통해서 상품을 만들어 내는데, 1318해피존\_모람아지트는 교육적이고 학생을 좋은 길로 인도한다는 조직 원리가 있기 때문에 도덕이 상품이 되고, 그래서 ‘착한 일 했다. 한 솔 준다’ 이런 것입니다. 또 교육효과가 뛰어났다면 이것이 바로 교육상품이 되고 거래되는, 솔로 그것이 교환되는, 거래되는 이런 시장을 만들어 냈는데, 신용의 창출구조를 어떤 권력이, 성남이면 성남시, 성남의 문화재단이면 문화재단이 권력을 갖고 그 신용을 담보해 준다면 그것이 화폐로서의 기능을 갖기 시작한다고 생각하는데, 본래 의미대로 한다면 성남에서 어떤 모델을 해야 되느냐 하면, 신용창출을 민간이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1모델보다는 2모델이 지역문화통화로서의 자기 가치를 담보해 낼 수 있는 모델이라는 생각은 갖습니다. 원래 화폐는 우리가 물물교환을 없애기 위해서 물건과 물건의 교환매개로서 화폐를 만들어 냈다고 생각하지만 경제인류학에서 보면 국가의 세금을 내게 하기 위해서 화폐를 만들어 냈다고 나옵니다. 세금을 내서 세금이 받아들여지고 하니까 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화폐의 신용이 창출됐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문화재단이 중심에 서서 신용을 창출하는 방식이 실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1모델이 좋고, 지역문화통화의 성격이 제대로 가게

하자는 이념성을 생각한다면 2모델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1, 2, 3모델이 순차적으로 연계되는 자기 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모델이 정착되면 자연스럽게 2모델로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모델이 사회 여론을 완전히 만들어낼 수 있다면 나중에는 이 지역에 어떤 여론이 만들어진 것을 기본으로 해서 3모델인 신용카드, 이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의 순서대로 간다고 그 흐름을 생각해 본다면 1모델을 먼저 이렇게 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화통화가 활성화 되면 시장의 성격이 확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시장의 법정화폐는 모든 상품의 가치를 균질화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기계생산에서 나온 것에는 균질화해서 가격표가 매겨지는 것, 시장이 자동으로 가격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문화상품이라는 것은 균질화 되기는 될 수 없는 구조를 상품 스스로가 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문화통화가 활성화 되면 상품의 균질화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오페라가 공연되기도 하면서 지역의 문화예술동아리들이 똑같은 공간에서 공연을 할 수도 있는, 그래서 상품의 가치라는 것이 법정화폐로 균질화된, 규격화된 가격매김이 아니라 불균등한 구조, 예컨대 제가 1318해피존\_모람아지트에서 교환되는 구조를 잠깐 구경했었는데, ‘나 술 하나만 줘’ 그러니까 준 사람의 통장을 보니까 구걸해서 줬다’ 그래서 교환이 구걸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완전 부등가 교환이 이루어지는 시장이더라, 이런 것입니다. 부등가 교환이 이루어질 때 아주 소수자들의 특징도 살려줄 수 있고 아주 인간적인 시장이 마련되는데, 아마 경제인류학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런 시장구조가 깨진 것이 19세기 중반부터 깨진다고 합니다. 그 시장이 이미 세계를 지배해 버리다 보니까 국가도 FTA 지금 통제 못하지 않습니까. 세계시장이 완전히 일원화되는 구조로 되다보면 미국이나 한국의 일상생활이 아무런 차이가 없어져 버립니다. 세계가 우리 일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등가 교환이 이루어지는 시장이 있어주면 어떤 소수자의 권리나 문화도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아주 공동체적인 시장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지역의 문화를 생산하는 동호인 그룹이 굉장히 많다고 되어 있고, 저도 지역에 문화활동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만 ‘문화를 생산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문화통화가 지배하는 문화시장이 된다면 가장 유리한 사람들이 문화생산자 그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열악한 조건들 속에서 자기들끼리 문화를 생산해 놓고도 소비를 시켜내지 못하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문화통화가 그 시장을 만들어 낸다면 이게 문화생산자들에게 가장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가치를 갖는 상품을 만들어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 향유시킬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장이 열렸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창조, 매개, 향유,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결국 생산, 교환, 분배, 소비의 시장경제구조를 문화에다가 대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산과 소비가 서로 선순환을 만들고 문화생산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문화소비자들의 조건도 향상되고, 문화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내가 소비한 문화상품이 생산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아까 1%를 직접 지원한다면, 그래서 소비가 생산을 바로 응원해 주고 소비가 생산을 유도해 내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실패하더라도 문화통화는 한번 시도해 볼만 한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기술적이고 실천에 있어서 생기는 문제점들은 아까 강원재님께서 나름대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이것이 성남 현실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천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강 선생님은 성남의 의료 생협도 같이 갈 수 있는 네트워킹에 하나 꺾는데, 사실 성남에서 의료생협은 아직 준비중입니다. 지금 추진위가 다음 달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지역에서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가능한 구조들을 한번 제대로 파악해 보고, 성남의 정치상황까지를 조건으로 다 집어넣어서 해 본다면 굉장히 유의미한 제도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얘기가 너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회 | 박승현

다음은 김해숙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성남시의회 | 김해숙

성남시 시의원 김해숙입니다.

저는 이 제도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제가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런 것을 제목도 잘 모르면서 시도했던 사례들을 이야기하면서 제 얘기를 마칠까 합니다. 저는 '주민생활협동조합' 이라고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웃이라는 열다섯 가족의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빠들이 돌아가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직업의 장기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거나 같이 놀거나 했었습니다. 그렇게 활동하면서 우리가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돈을 걱정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같이 해 보자 하는 마음으로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웠고, 그러면서 지금은 생협 속에서 문화마당이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도 뜻을 같이하는 좋은 선생님들이 참여해 주셔서 사실은 한 달에 1~2만원에서 그런 수업이나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계속하면서 사실 이런 지역통화라든가 문화통화 이런 것을 고민했지만 사실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야 할지는 몰라서 계속 우리 방식대로 '이렇게라도 한번 해 보자' 하고 나름대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3모델에 대한 고민도 조금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하는 것에서 범위가 넓혀지면서 우리가 밥을 먹기도 하고 외식을 하기도 하고 다른 활동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이 3모델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계속 필요로 하면서 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그 시스템이 아직 정착되지 않아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모든 조합원들이 참여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상당히 이런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사실 문화재단에서 좀더 가시적으로 이렇게 모임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의미를 갖고, 어떤 제도든지 좋기는 하지만 그것이 바로 접목되기란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단계별로 어떤 것이 지금 수준에서 가능할 수 있는지를 선택해서 시작하여 점점 발전해 가는 그런 모습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3모델도 해 보면 좋겠지만 문화로써 그런 갈증이 있다고 한다면 1모델로 해서 단계별로 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 조합원도 여기에 5천명 되지만 많은 시민들이 사실 모든 것을 지금은 돈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큼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주를 내놓는 사람도 그냥 무료봉사가 아니라 나름대로 그 가치를 살리면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통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시스템이 반드시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회 | 박승현

감사합니다. 네, 김용익 선생님 말씀하시죠.

경원대학교 | 김용익

또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하동근 선생님 말씀 정말 이해가 잘 됐습니다.

법정통화, 자본주의의 꽃인 법정통화로 인하여 노동상품이 됐든 일반상품이 됐든 균질화 돼 버리고 매끈하게 개념화 돼 버리는 상품시장에 이질감을 만들자는 거죠. 부등가 교환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인간적인 감정도 들어가는 것이고, 이런 좋은 말씀이고, 바로 이것이 지역통화의 본래 목적이고, 바로 자본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화폐에 의해서 시달리고 있는 우리의 삶에 어떤 숨구멍을 내자는 그런 의미라는 뜻으로 말씀해 주신 것을 감동 있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굉장히 잘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이냐 하면서 말씀드린 것이 지역통화와 문화통화가 다른 것인데 지금 우리가 혼용해서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드렸는데, 또 조금 듣다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통화인데 지역에서의 문화행사에 지역통화를 쓰자’ 그러다 보니 지역통화와 문화통화란 말이 혼용되고 있거나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작년에 제가 ‘우리마을 문화공동체 만들기’ 라는 프로그램에 법정통화를 가지고 참여하면서 그 경험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이런 지역통화를 문화통화로 작은 지역 안에서 활용하려면 창조와 매개와 향수라고 하는 순환고리가 그 지역 안에서 자족이 되어야 되는데, 매개와 향수까지는 잘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창조부분에서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지역 안에, 작은 커뮤니티 안에 문화창조자가 부족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럴 때 외부사람이 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외부사람이 와서 지역통화를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분께 적절한 다른 법정통화로 보상을 해야 한 다든가 이런 보완책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만약 이 사업을 시행한다면, 예를 들어 2007년도에도 작년과 같은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태평2동이 됐든 금광1동이 됐든 지역통화, 문화통화의 개념을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동근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1모델은 굉장히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런데 한계점이 너무 많죠. 한계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1모델을 했을 경우 법정통화가 가지는 개념적이고 균질화시키는데 분명히 이질성을 만들어낸다고 봅니다. 분명히 한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되기 쉬운 1모델부터 하는 것이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 | 박승현

다음은 전 선생님 말씀해 주시고, 황 선생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에이스벤처라에서 실제 작업하시면서 느꼈던 말씀을

잠깐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 **전호관**      저 개인도 왜 이런 데 관심을 갖게 됐냐 하면, 사실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 애가 로봇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신문을 펴보니까 애들과 놀이 만드는 것을 해 주는 업체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와~ 이런 좋은 업체가 있나’ 해서 전화를 걸려고 하다가 ‘애랑 놀아주는 것까지 돈을 내고 사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한번에 딱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이 아파트에 뜻이 통하는 사람 열 집만 있으면 로봇 놀이는 저쪽 집에 가서 하고, 애들이 보면 좋을 비디오는 내가 많이 갖고 있으니까 애들 모아놓고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사실 친목도 다니고 돈을 안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것을 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저를 돌아보니까 지금 현재 경제가 완전히 100% 소비 의존적으로 포획된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김용익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통화운동이라는 것은 그런 자발성 같은 것들을 갖고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통화하고 문화통화 구분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역통화하고 문화통화는 지금 같은 추상 수준에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역통화나 문화통화는 공통적으로 대안적인 통화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문화통화라고 하는 것은 문화라는 소재를 가지고 다룬다라는 의미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를테면 지역에서 통용되는 문화통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을 ‘문화통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사실 어떤 대안적인 화폐운동이라는 것에 큰 범주가 있으면 문화통화라는 부분을 설정해 볼 수 있는데, 여기에 현실적인 모델을 개발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뭐냐하면 사실 누군가가 추진을 할 때 지역통화의 본래적인 의미에서 약간씩의 변형이 있다.

그래서 일부의 장점을 취하면서, 저희가 주말마다 서너 번 모여서 토론을 했는데 토론할 때도 연구진 내부에서도 격렬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하면 어떤 현실성의 원칙 같은 것을 생각하면 도입 초기에는 법정화폐와의 교환기능이 없이 된다는 것은 공동체라는 것이 선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적어도 정책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법정통화라는 것이 교환시스템이 부분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강하게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시는 분들은 ‘그러면 그냥 돈으로 주지 뭐 하러 통화라는 것을 발행해서 사람들을 번거롭게 하는가’ 그런데, 혼용을 해서 사용을 하더라도 부분적인 사람들 사이에 만나는 거래빈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단계를 거쳐서 조금씩 진화해 가는 것들이 정책모델로써, 예를 들면 공동체가 추진하는 정책모델이 아니고 운동의 일환으로써 하는 모델이라면 조금 다른 순번을 취할 수가 있는데, 정책모델로써 채택을 하려면 성남문화재단의 어떤 사업과 연계되

면서 약간의 교환기능을 설정하는 것부터 출발해 보면 좋겠다. 만약 이것이 시도되는 과정에서 ‘우리 동네에 어떤 모임이 있는데 이런 것에도 적용이 가능해야 되겠다’ 그런 사례가 나오면 성남문화재단이 또 사업을 개발하든지 그 안에서 통화체계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재화 화폐로 묶는 서포트 기능을 하든지, 이런 식의 어떤 불균등하고 이렇게 딱 모델이 있어서 주체들이 할 일이 있고 하는 이런 모델로 가는 것보다는, 지금 현실 가능한 조건에서 출발하면서 각각의 노력들을 인큐베이팅 한다고 할까 블레싱 한다고 할까, 이런 단계의 문제 위상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개념적인 문제들이 계속 나오는데 사실 개인의 경험에서부터 생각해 보면 오히려 사실 그렇게 복잡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쓰는 물건, 성남시 차원에서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형식적인 언어들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것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하시는 현장 속에서도 이런 일이 촉진돼서 어느 정도 되면 그때는 이것이 어떻게 연계될 것인가. 그래서 사실 제가 처음에 연구작업을 제안 받았을 때 ‘사실 이것은 의지의 문제인데 무슨 이것을 연구작업을 하나?’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이것은 의지를 모아서 하면 되는 일인데, 이것을 꼭 연구모델을 만들고 이럴 필요가 없는 일인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의지의 문제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앞으로 1모델이든 2모델이든 도입하시더라도 굉장히 많은 문제에 부딪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문화통화와 다른 데서 사용되는 통화는 어떻게 교환을 할까’ 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주체형성과정은 사실 통화의 도입과정과 거의 일치하는 과정일 것 같습니다.

사회 | 박승현

예, 황정주 지부장님 말씀하시죠.

성남민예총 | 황정주

성남민예총 지부장 황정주입니다.



아까 김용익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많이 실감이 가고 공감도 됐던 것이, 저희도 지난번에 같이 태평4동 마을공동체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저도 1모델, 2모델, 3모델을 보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문화통화 관련해서 일본연수도 함께 갔다오고 그러다 보니까 좀더 고민을 할 수 있는 계기는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역통화와 문화통화 개념의 차이, 문화통화를 성남지역 현실에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 그런 현실 가능성의 문제서부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서, 저는 언뜻 2모델이 제일 모범답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

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태평4동 마을공동체를 하면서 실제로 전효관 교수님 말씀하셨던 주체를 형성하는 과정 자체가 상당히 정성과 품이 많이 들어가고 기간이 중요하다는 것이 하나의 교훈이었습니다. 벽화 미술관을 하는데 저희는 지역작가들이 태평4동에 살고 있는 작가들, 태평4동 인근에 살고 있는 작가들이 다 결합해서 했지만, 실제로 이 지역의 우리가 하는 공동체를 지역주민의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주인으로 참여해서 같이 함께 창조하고 향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정말 힘들구나. 예를 들어서 아까 오일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1318해피존 같은 경우나 아니면 민예충도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공동의 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단위에서는 그 사업이 참 쉽다. 예를 들면 민예충과 지역아동센터와 1:1 품앗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미 하고 있습니다. 기간에 문화예술교육사업을 지역공부방이나 지역 저소득 아이들에게 왔다 갔다하는 사업, 그리고 작년에 인권영화제 교류사업 이런 것들이 1:1 품앗이 사업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민예충에서 충분히 재정적 어려움을 신경 쓰지 않고 그것을 다 부담하면까지도 그 의지가 있으면 하게 되는데, 이와 요구가 같은 집단 안에서는 그 자체 내에 어떤 품앗이나 지역통화, 문화통화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밖을 넘어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가운데에서 문화통화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문화공동체 주민협의회마을통화사무국을 형성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역통화는 물질과 물질이 오고갑니다. 누구는 미술 할 줄 알고 누구는 춤을 할 줄 알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미술을 가르쳐 주니까 너가 그대신 춤을 가르쳐 줘라’ 예를 들면 지역통화라고 따지면 물질과 물질 구체적인 것들이 다 가는 것이 지역통화라고 한다면, 문화통화는 추상적이고 약간 관념화된, 그리고 우리 관념 속에서는 눈에 금방 보이지 않는 뭔가 그런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이 지역에서의 하나의 문화정책으로 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어떤 하나의 조그만 동질의식이 같은 그런 집단 안에서의 교류통화를 하는 것이 문화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일반화되고, 그리고 일반적인 개념으로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한 동의 지역사회, 태평4동이면 태평4동, 수진동이면 수진동, 그 동 안에서의 문화통화들이 오고가는 것이 있어야 그것이 실제로 문화정책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2모델을 하기에는 우리의 준비정도가 더 많은 정성과 품, 시행착오 이런 과정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는 전단계로 해서 1단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오늘 토론을 하면서 느끼게 됐습니다. 지난번 사랑방문화클럽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를 매개로 한 클럽 동호회 30개 단체가 모였는데, 그들의 교감이나 소통의 과정, 하고자 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 있는 정서적 공감대에서 제일 좋은 것은 공동체성, 나눔, 뭔가 서로 함께 나누고 협력하고 도와주고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형성되어 있는 분들이 모이신 것이 사랑방문화클럽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1318해피존이라고 하는 그런 모델을 뛰어넘어서 성남에서 문화통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지역민들의 참여의식을 높이는 과정에, 주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2단계를 가는데 그 전단계로 사랑방문화클럽의 문화통화, 그리고 문화통화를 형성하는 과정에서는 어쩌면 주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제일 많은 지원이 필요한 것이 예를 들면 문화재단이나 성남시, 구청, 동사무소 이런 공공 기관들의 지원과 지원이라는 것이 재정지원 뿐만 아니라 그런 마인드와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함께 해보자고 하는 협력체계를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것이 되면 사실 문화통화 사무국을 예충이 한다, 또는 민예충이 한다, 아니면 다른 사회단체가 한다고 해서 된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지역의 마인드를 함께 할 수 있는 자치센터, 동사무소, 구청 이런 곳들과의 협력체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태평4동 마을공동체가 나름대로 의미 있게 될 수 있었던 데는 태평4동 주민자치센터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도 같이 독려하고 시도 같이 독려할 수 있었는데, 그

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느 일정 기간은 성남에서 문화재단이 이 정책을 입안했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일정정도 그 책임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합니다. 예를 들어 2단계, 가장 모범인 시민이 주인되고 시민이 주도하는 그런 문화통화가 되기 직전까지 되는 과정에서 어쨌든 1단계의 문화재단이 여기서 사랑방 문화클럽을 통한 문화통화의 모델,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확산하는, 그래서 그것이 지역으로 동네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단계들을 밟는 것이 현실적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남시자원봉사센터 | **조은주**

잠시 제가 부연설명이 있습니다. 문화통화의 기본 원리가 나눔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zero-sum 게임이고 재화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통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정말 단정지을 수 있습니다. 기본정신은 나눔과 협동과 공동체의식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통화가 이루어진다, 서로간에 '내가 너한테 이것을 줬는데 너는 나한테 무엇을 줄 수 있니?' 이것이 기본적으로 '무엇을 줄 수 있니' 를 계속 따져 가면 솔직히 통화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그것은 이미 우리 법정통화로 지불해야 되는 그런 가치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나눔의 정신을 잃어서는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내용인 것 같아서 부연설명 드렸습니다.

사회 | **박승현**

감사합니다.

에이스벤처라 말씀해 주시고, 사회복지 쪽에 권태록 팀장님 계시는데 다음에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장노현 교수님께서도 한국학 쪽에서 바라보시는 입장도 들겠습니다.

에이스벤처라 | **노재정**



저희는 아이들과 실행을 하면서 사실은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통화개념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장애가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도 교육을 실행하고 배우고 공부해 가면서 문화예술교육과 문화통화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결합시키고 아이들한테 문화통화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시킬까 라는 것들을 많이 고민했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훨씬 더 그 개념에 대해서 낯설어하지 않고 훨씬 더 계산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통화라고 하는 것들이 나눔이나 서로 관계를 만들어간다는 것들이나 서로 보이지 않는 가치를 찾아낸다는 것들이 어른들에 비해서 훨씬 빨랐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른들이 그 과정에 들어오면서 문화통화를 상점이나 별점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권력자로서 나타난다든가 그런 것들이 더 큰 문제로써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들이 참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과정 속에서 이 문화통화가 실제로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으니까 어떤 가능성들이 있는지 많이 보게 됐는데, 문화통화는 결국 관계를 촉진하는 역할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계획하기로는 내부에서 어떤 가치, 문화통화라고 하는 것들, 교육적인 가치를 이해시키고 외부로 나가는 것까지를 애초에 목표로 했었는데 실제로 외부로 나가는 것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들 오셔서 마지막에 공개방송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눔의 가치들을 서로 이해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고민하게 됐었는데 결국에는 ‘어! 너희들 술 운영하고 있구나. 이 술이 뭐니?’ 라고 그 정도까지 있었는데, 실제로 그 술을 외부에서 선생님들은 ‘이것을 돈주고 사야 돼?’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아이들은 그냥 오면 내가 무엇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문화통화로 획득되는 것을 알고 있는 정도인데 오히려 어른들이 가면 낯설어하고 힘들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육과정들 속에서 그런 관계들을 계속 촉진해 나가고 만들어나가는 모습들을 많이 봤고, 그것들이 사회적으로 꼭 뭔가 법정화폐의 대안이나 꼭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사회적인 교육적 가치들을 많이 만들어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속에서 문화적인 성장 혹은 문화적인 혜택들을 받으면서 사회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서 아이들이 바깥으로 교육을 하러 나갔을 때 스스로 경험치를 획득하고 어른들과의 관계를 계속 만들어나가고 하는 좋은 매개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문화통화가 성남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한다면 문화통화 교육이 좀더 현실적이고 좀더 많은 것들을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남에서 다른 여러 가지의 고민들이 있겠지만 청소년들 문제나 혹은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대안적인 형태의 교육으로서 문화통화가 조성이 된다면 저희로서는 굉장히 많은 가능성들을 타진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회 | 박승현

예, 고맙습니다. 권태록 팀장님 말씀하시죠.

성남사회복지협의회 | 권태록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권태록입니다.



저희 복지 쪽에서는 지역사회 복지사업으로 지역화 폐운동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지역 안에서 합의된 신뢰를 받아내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속시키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일단 이 부분이 문화화폐를 과연 운동적 성격으로 할 것인지, 정책적으로 접근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근방법들이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저희 경험에 의해서 지금 보면 공동체 안에서 단체나 기관에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역사회 로컬이나 커뮤니티로 왔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가령 같은 것을 공유하는 단체나 집단에서 규율로서 제정이 되어진다면 합의된 규율로서 하게 되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것이 지역사회에 왔을 때 과연 어떻게 합의를 시켜주느냐, 과연 문화통화라고 하는 것은 문화를 서로 교환한다는 것, 문화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매개체로 문화통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문화통화를 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과연 이 문화를 활성화시키는데 문화통화라고 하는 방법으로 해서 넓게는 성남시민이 누구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최종적인 것들을 갖고 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한 번에 그런 가치를 창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1모델에서는 동아리 중심으로 했는데, 지금 그렇게 되는 것도 제가 생각하는 지역통화라고 하는 것은 환가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지금 자꾸 돈이라는 개념이 와서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것이 과연 시민활동으로 갔을 때는 돈이라는 개념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다보니까 환가개념이 생기게 되고 돈이라는 개념이 생겼을 때 어떻게 될 수 있을지 저도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의 정책 입안자들이 먼저 결정을 해주셔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2가지가 혼재되어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어차피 저희가 볼 때는 아마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운동 또는 문화운동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2모델이 지역사회 안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 모델인데, 2모델은 경험적으로 보면 문화나 일반화됐던 그런 모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문화라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원이 많이 있어야 이것이 통용이 되고 가치가 환가가 되는데, 문화라는 것은 또 소수에 집중될 수도 있고, 지역적 범위가 4동에 있고 이렇게 않습니다. 구 전체를 따져봐도 그렇게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그런 면에서 좀더 결정할 부분들은 결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논의되는 방법론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 | 박승현

고맙습니다.

지금 에이스벤츄라와 함께 우리 1318에서 라디오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술’을 실제로 나누었던 통장이 있는데 그것을 돌아가면서 보시면 ‘아이들이 구체적으로 통장을 어떻게 사용했나’ 거기에 내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것을 돌려보시면 훨씬 더 생생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장노현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 장노현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장노현입니다.



저는 여기 와서 새로운 분야를 많이 배우고 듣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는 문화통화나 지역통화 같은 것들이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짧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1318해피존\_모람아지트 쪽에서 말씀하실 때는 문화통화나 지역통화의 의미가 교육적인 측면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화연대 하동근 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의미를 잡아냈습니다. 사회경제적인, 전세계적인 측면에서 의미를 잡아냈는데, 지금 여기 성남시나 또는 지역에서 영위되고 있는 지역통화나 문화통화가 어떤 수준의 의미를 갖고 우리가 실천해 갈 것인지에 대한 세팅이 좀 더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318해피존\_모람아지트의 사례에 훨씬 더 가깝게 기울어지고 있는데, 여기 와서 들으면서 2가지

부류인 것 같습니다. 제시된 1모델을 먼저 실행하면서 점진적으로 심화시켜서 2모델로 넘어가자는 말씀이 있었고, 하동근대표 같은 경우는 1모델보다는 2모델 쪽에 무게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는 기본적으로 관 주도나 중앙의 집중된 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이 직접 생산해 나가는 쪽에 비중을 뒤서 문화정책이나 이런 제도들이 좀 더 정비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하동근 대표님 같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좀더 쉽게 말한다면 1318해피존\_모람아지트 같은 소그룹에서 문화통화를 활성화시켜서 그런 소그룹들이 수백 개 만들어진 상태에서 문화재단이나 이런 쪽에서 비슷한 소그룹들을 엮어서 좀더 큰 단위로 엮어나가고 이렇게 하다보면 쉽지는 않겠지만 가장 트러블이 없게 전체 큰 단위의 성남 문화통화 시스템을 구축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체적인 기획 하에서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설계하고 그것을 일방적으로 시행하려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많은 생각이 못했던 오류들이 발생할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런 쪽에 훨씬 더 비중을 두면 좋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아무튼 1318해피존 같은 사례가 소그룹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것이 증명된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 비중을 뒤서 실천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 | 박승현

고맙습니다.

김정은 선생님 말씀하시고, 김기봉 팀장님 다음에 이상훈 실장님,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 김정은 한국학 중앙연구원에 김정은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생각했는데, 아까 ‘환금을 해야 되느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별로 안 순수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환금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 사실 자기가 했던 행동이나, 줬든지 받았든지 그런 것에 대한 보상이랄까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환금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더 거래가 활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저는 그 환금이라는 개념 자체를 지금 현재 잔고가 10솔이다 그러면 10솔이 1만원이다, 이렇게 1:1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최종의 잔고가 아니라 거래가 꾸준히 일어났던 거래 실적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것에 대한 가중치를 뒤서 최종 남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회 | 박승현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기봉 팀장님 말씀하시죠.

정자청소년수련관 | 김기봉

정자청소년수련관에서 미디어 교육을 하고 있는 김기봉입니다.



저는 이 나눔통장을 보면서 ‘따뜻하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참 좋다고 느끼는 것은 ‘결석하면 -5솔’ 이것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영화작업을 하면 모이는데 1시간 반 걸립니다. 일찍 온 친구들 오죠, ‘조금 이따 갈게’ 하고 도착하는 친구, 늦게 오는 친구 1시간 반 걸립니다. 이럴 때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무지 싸웁니다. 일단 작업하기 전에 ‘너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른들이 만들어낸 언어가 우리가 헛갈리게 하는 부분들이 있고, 오히려 아이들한테는 던져주면 놀이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하자에서 했던 ‘틴틴 이코노미’ 라든가 성미산학교에서 시장의 원리를 이해하는 상거래... 이런 교육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고 하면 자연스러운 인성교육이 될 것이고, 경제교육이 될 것이고, 또 나눔 교육이 자연스럽게 된다면 저는 돌아가서 제가 운영하는 클럽에 ‘이런 것이 있는데 해 볼래?’ 라고 얘기를 하면 일정부분 아이들의 원칙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본다고 하면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기본적으로 실천 모델이라고 한다는 거시적으로 보았던 모델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아이들하고 접할 때는 재미 삼아 한번 해 보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 1:1통화형태 이런 것들이 조금씩 확산되어서 이런 것들이 제반 기반이 됐을 때 그때 정책을 논하고 얘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천 실천’ 얘기하는데 내일부터 실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 박승현

예, 이상훈 실장님 부탁드립니다.

성남미디어공동체 늘봄 | 이상훈

미디어공동체 늘봄에 있는 이상훈입니다.

아까 발제 들으면서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냈던 토크, 회수권부터 TTL카드 등 여러 가지가 생각이 들면서, 저는 1모델, 2모델, 3모델을 보면서 지금 성남의 문화활성화를 위해서 목적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따라서 설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예컨대 버스나 이런 것이 많지



않는데 토크부터 만든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역에서 이런 문화통화를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주체들을 잘 세워놓고 그들이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먼저 세워놔야 그 다음에 통화가 활성화되고 지역 전체로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기 1모델에 있는 목적 자체에, 우리 문화클럽의 활성화라든가 문화클럽간의 교류, 소통 이런 것이 오히려 성남에서는 문화적 과제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거기에 많이 맞춰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것을 잘할 수 있는 통화 정도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활성화되어서 정말 교통량이 많아지고 해서 토크를 찍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카드나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아무튼 이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고민이 되는 것은, 만약 사진 동아리에서 문화통화를 얻었는데 실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필름인지, 아니면 현상하는데 드는 비용이랄지, 아니면 전시하는데 액자를 사야 된다는지 이런 것이 많이 소요될 텐데, 문화통화로서는 그런 것을 사용할 수가 없고 전시관 정도라든가 이렇게 사용이 많이 한정될 텐데 과연 클럽이나 이런 데에서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방법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런 몇 가지 과제가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 | 박승현

감사합니다.  
지역아동센터로 넘기겠습니다.

성남지역아동센터연합회 | 김미정      지역아동센터연합회 사무장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얘기였고 사실 그 전에 통화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해 보거나 이러지는 못했습니다. 1318해피존\_모람아지트에서 선생님이 그런 작업들을 하시면서 저희 아이들에게도 같이 확대시켜서 뭔가를 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셨을 때 그러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이고, 이후에도 계속 고민과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가 듣기에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모델로 만들어서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돼서, 1318해피존\_모람아지트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2가지 갈래로 나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제가 이 통화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생소했고 나중에는 ‘이게 뭐지?’ 관심이 가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역문화통화의 개념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1차적인 공감할 수 있는 단위부터 교육사업을 확대시켜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좀더 많은 사람들이 이 개념을 알고 덤빌 때 그 모델을 만들어서 일을 할 때 좀더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



안들이 모색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갈래는 민예총 지부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가능할 수 있는 단위들, 아까 한국학 교수님 생각과 비슷한데, 가능할 수 있는 단위들이 자꾸 그런 통화를 유통시켜내는, 아니면 통화에 대해서 교육이 되어지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나눔이나 공동체성이 기반이 되어야만 통화의 유통이 가능한 것처럼 그것들을 실천해 볼 수 있는 기획, 이런 사례들을 이미 1318해피존\_모람아지트처럼 한 공간으로 공동체라는 것이 묶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곳일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전혀 되지 않고 다른 물적 토대만 가지고 쓰는 데도 있는데 그런 사례들이 유형화되어져서 사례관리를 해서 그것들을 모델링화 시켜내다 보면 나중에 이것들을 엮어나가는 작업 속에서 우리가 과연 가능할 수 있는 지역문화 통화의 작업은 이 지역 현실사회에서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고민들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정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 | **박승현**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장순 선생님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발언이 없으시면 세 분의 선생님들께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고, 노재천 국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청년대학 | **우장순**



다른 분들도 말씀하시지만 사실 상당히 복잡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 복잡한가 생각을 하다가 드는 생각은 통화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돈인지는 몰라도 돈 문제가 걸려서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입장이 많이 난처한데, 사실 지역단체에서 활동도 하면서 연구원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토론도 몇 번 했는데 결론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 문화재단에서 어떤 시각과 관점을 갖고 있는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나 여기 계신 단체분들은 적어도 단체활동을 하면서 아까 계속적으로 나오는 나눔과 소통의 문제, 그런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확산하는 것이 활동의 이유, 내지는 근간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할 때 보면 2모델이 어쨌든 간에 가장 긍정적인 모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라서 저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주체형성일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앞서서





한 가치를 생산할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1318공간에서 아이들과 확인한 것이 저 아이들한테는 굉장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같이 합시다’ 라고 운동적 차원에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꼭 운동은 안 하고 정책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다같이 운동을 해 봅시다. 즐겁게 놀아봅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곧 문화라는 것입니다. 이 성남지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문화이고, 이것은 돈 가진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생각할 수 없는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이 전개됐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누가 ‘그래, 너 혼자 잘해 보라’ 라고 했다면 아마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 아무리 가서 ‘우리 같이 술을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될까? 너무 일이 많은 것 아니야?’ 우리의 기준으로는 너무나 먼 길이고 너무나 어려운 길이어서 선뜻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도 혼자였다면 감히 이런 미친 짓을 안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문화재단에 계신 분과 ‘나는 라디오’ 라는 교육프로그램이 굉장히 주도적인 자기 성격을 분명히 가지고 결합했다는 것입니다. 결합해서 우리를 실장의라는 강좌 속에서 교육을 했고, 거기에 모두 참여한 구성원들이 술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 것이 뭐다라는 것을 석 달 동안 충분히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자유로움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그 자유로움이 너무 즐거운 재미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정하게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쓰고자 하는 사람들, ‘그래, 그 운동 한번 해서 재미있는 인간관계 구성해서 놀아보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에게 일정 그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적절한 방식을 결합, - 많은 능력을 갖고 계시잖아요. 음악능력, 연극능력, ‘나는 라디오’ 능력, 이 많은 능력을 갖고 그들과 결합하는 방식을 개발해 내시고, 그들에게 통화에 대한 설명과 가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공유해 나가면서 이것이 성남의 지역통화에 자리잡을 수 있는 모태를 만들어내신다면 정말 성남시가 한 정책 중에 가장 인간적인 정책을 했다는 평가를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 | 박승현

감사합니다.

성남문화재단 | 정석준

안녕하세요, 문화기획

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석준 과장입니다. 저는 지역통화 관련 프로젝트를 광명시평생학습원에서 한번 해 봤고 성남문화재단에 와서 ‘문화통화’란 새로운 시스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분들처럼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항상 지역통화를 하고 있는 분들 안에 있으면 상당히 따뜻합니다. 따뜻하고 ‘아, 이것이 진짜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구나’ 그렇게 흥분되서 ‘그래, 이것을 온 사람들이 모두 다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다 통화를 나누는 테두리 밖으로 나와 현실에 서면 ‘과연 통화가 커뮤니티를 떠나 일반 사람이 사는 각박한 현실에서 가능할까?’ 라는 현실의 무게감에 짓눌리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어디서부터 올까? 넘어설 수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윤을 추구하고 보다 많이 가질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데, 그것과 뗄 수 있는 부분인 것인지 한번 도전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는 합니다.

아까 ‘실제로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방금 든 생각이, 지역단체들 간담회 같은 회의를 하면 참석수당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식통화처럼 해서 회의 참석하는 분들께서 통장을 갖고 회의나 간담회 갔을 때 지역통화를 주고 받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돈으로 20만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지역통화로 받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지역통화를 받은 사람이 지역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떤 강의가 필요할 때 서로 지식을 나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방금 생각이 났는데, 그런 것을 먼저 시범적으로 어디선가 시작하면 지식통화를 시작으로 여러 가지 좋은 커뮤니티형 통화들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역통화는 무척 다양할 수 있고, 각자 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할 수 있는 통화들이 또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 **박승현**

김낙중 기자님, 취재만 하시지 말고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남일보 | **김낙중**

발언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강원재 선생님께 여쭙보고 싶은 것이, 발제하시는 도중에 2모델이 경기문화재단에서 용역과제 수행하시면서 모델로 제시하고 싶은 모델이었다고 하셨는데, 그 모델이 현재 어느 정도까지 작업들이 진척됐고 어떤 성과들을 남기고 있는지, 지금 ing 중인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듣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대안교육센터 | **강원재**

그 이후에는 2모델을 가지고 지역을 찾았습니다. 그랬을 때 지역으로 보였던 것이 광명지역이 보였었고, 그래서 광명지역에서 그것을 시스템으로 개발하는 방식들까지 연구작업이 진행됐던 거죠. 그 이후에는 실은 진척이 하나도 안 된 겁니다. 그것이 실행모델로 넘어갈 때 문제는 광역단위에서는 그것을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방금 여러 분들이 다 지적을 하셨는데 지역에 주체가 없는 한은 이것이 이루어지기가 힘든 것입니다.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성남일보 | **김낙중**



그것을 박승현 부장님이 문화통화, 이 사업들을 하신다고 했을 때 제가 90년도에 지역 시민모임에서 지역통화사업들을 실제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을 직접 취재했었고, 그런 정보들을 주면서 그때 어떻게 운영을 해 왔고 왜 실패를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이 문화통화사업들에 반면교사 형태로 해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계신 이상훈 실장이나 청년대학에서도 그런 통화운동을 실제적으로 준비를 했고, 자원들이 어떤 자원들이 있고 서로 가치를 등가로 할지 부등가로 할지의 부분에서는 세세하게 평가하지 못했지만, 청년대학에 소개하고 있는 3천여 명의 동문들이라든지 회원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것을 운영해 볼 것인가, 자원발

굴을 해 놓고 실제적으로 시스템개발이라든지 이후 작업들을 진행 못하면서 그런 소중한 경험들이 수포로 돌아갔었고, 그런 지역에서 몇 차례 지역통화를 시도하려고 했던 실제적인 사례들이 있었는데 지켜보면서 아쉬운 것들은 1318촌에서 최근에 운영했던 그런 사례들은 하나의 자그만 공간이기 때문에 공동의 가치관들이 형성되어 있는 자그만 단체에서는 의지만 있으면 그것은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80년대 말이나 90년대 초에 지역에서 실제적으로 2모델의 모델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의 통화운동들을 해 왔던 경험들, 실제적인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의 구체적인 운영과정이라든지 왜 실패를 했고,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었고, 과연 그것이 주체가 없어서인지, 그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런 것 속에서 하동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등가나 부등가 떠오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철학적인 문제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역에서 운영되어 왔던 실제적인 평가들, 소중한 경험들, 이런 부분들이 문화통화사업들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실사구시적으로 반영을 해야만 지역실정에 맞는 통화정책이 됐든 운동이 됐든 그런 것들이 가능해 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회 | 박승현

성남문화재단 | 노재천



끝으로 노재천 국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가 처음 문화정책 대화모임이라고 해서 만든 자리인데요, 오늘 의견들을 제가 아까 인사 말씀 드리면서 이것이 저희들한테는 큰 힘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둘 모여져서 좋은 결실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이야기하신 중에서 어느 분께서 ‘문화재단이 구심점이 돼서 이것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이 발제내용 중에서 1모델, 2모델, 3모델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사실 ‘이것 중에서 어느 모델이 좋습니까?’ 를 여쭙는 것은 아니었고, 이렇게 1모델, 2모델, 3모델로 해 놓으니까 너무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의도는 그것이 아니고 ‘사례가 1, 2, 3개가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세 번째 사례까지도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차원에서 연구진들하고 의논했던 부분인데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1모델이 됐든 2모델이 됐든 3모델이 됐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먼저 시행하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한 것은 숙제로 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것이 에이스벤처라 에서 지난번에 1318해피존\_모람아지트하고 같이 작업을 하시면서 순박한 초등학생들이 느꼈던 그 느낌이, 사실 아까 돈하고 문제가 되니까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들려지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통화제도를 도입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하면,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 지역 내에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고 새로운 문화가 싹트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었던 모델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통화라는 것에서 나눔 부분들이 계속 나오는 것은 이런 것을 통해서 성남이라는 도시가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서 가장 으뜸가는 도시로 갈 수 있는, 실패를 하더라도 문화의 터전이 마련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이런 모임을 해서 여러 의견들을 많이 듣고 저희 의견에 반영시킬 것이고, 금년 상반기 중에는 어떤 모델이든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실패가 되더라도 실행해서 조레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후차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가동을 시키면서 실패사례들은 좀 더 연구를 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 | 박승현

감사합니다.

장시간 문화통화를 가지고 오늘 참석해 주셔서 좋은 말씀해 주신 여기에 모인 분들이 결국 성남의 문화통화를 함께 만들어 가시고 창조해 나가실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의 논의가 담겨서 대화록으로 남겨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연구보고서에 반영될 것입니다. 2월말에 여기 계신 연구진들과 함께 연구보고서를 내고, 그 연구보고서 바탕으로 해서 다음 대화모임을 한번 더 가질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문화정책 대화모임을 이 주제만이 아니라 5대 정책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생각입니다. 아마 문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도시를 만들어나가는 바탕이 되며, 이 부분이 여기에 계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성남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만들어가야만 이룰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뒤에 못 다한 이야기들을 간단한 음식들 나누면서 더 이야기를 함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힘찬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박수)



성남문화통화도입을 위한 문화정책 대화모임 명단

성명	소속 및 직책	이메일
강원재	서울시대안교육센터 부센터장	iffree@activelearning.or.kr
권태록	성남사회복지협의회 팀장	rnjsxofhr@empal.com
김기봉	정자청소년수련관 팀장	mom21@dreamwiz.com
김미정	성남지역아동센터연합회 사무국장	aidllove@hanmail.net
김세훈	수정청소년수련관 운영팀장	asco74@simc.or.kr
김용익	경원대학교 미술, 디자인학부 교수	profyongik@paran.com
김재순	에이스벤처라 강사	r대222@naver.com
김정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	pan@aks.ac.kr
김정진	성남문화원 사업부장	arts21@hanmail.net
김종대	성남문화만들기 대표	jedaik@hanmail.net
김지백	중부일보 기자	jbkim4746@hanmail.net
김지영	인천문화재단 문화사업팀	kjy1124@ifac.or.kr
김지혁	ID분당 기자	marceljh@naver.com
김태진	성남의제21 사무국장	master@snag21.or.kr
김해보	서울문화재단 전략기획팀	sea@sfac.or.kr
김해숙	성남시의회 시의원	haesook308@hanmail.net
남연숙	성남문화연대 간사	nys2802@dreamwiz.com
노재정	에이스벤처라 강사	njjeng@hanmail.net
노재천	성남문화재단 문화사업국장	littleg@snart.or.kr
류진형	성남예총 사무국장	artsroom@hanmail.net
박승현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장	parktutor@snart.or.kr
박영애	성남시의회 시의원	p4953@hanmail.net
박종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moosim@hitel.net
송태환	수정청소년수련관 실장	sth0426@simc.or.kr
오일화	1318해피존_모람아지트 책임실무자	tod1896@paran.com
우정순	성남청년대학 부회장	kw1989@empal.com
유순주	성남문화연대 운영위원	ekfl59@hanmail.net
이경구	수정구청 문화체육 담당	sy30lee@naver.com
이광우	함께여는 교육연구소 소장	1khbd@paran.com
이상훈	성남영상미디어공동체 늘봄 실장	lohuman@gmail.com
이승일	주민신탁 이사장	naksitu@hanmail.net
이제영	성남시청 문화예술과 팀장	ijyoung@cans21.net
이종덕	성남문화재단 상임이사	jd7771@snart.or.kr

성남문화통화도입을 위한 문화정책 대화모임

이창문	뉴스리더 기자	
임승철	성남내일을 여는집 목사	jijaje21@hanmail.net
장노현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jnohyun@aks.ac.kr
장동혁	성남문화만들기	captain-jj@hanmail.net
전효관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9junk@hanmail.net
정경미	성남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장	koungmi35@hanmail.net
정기영	성남시의회 시의원	jkykys@nate.com
정석준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장	orgy7@paran.com
정용한	성남시의회 시의원	cjdan@hanmail.net
정인옥	주민생협	jucoop@chol.com
정현희	중원구청 문화체육 담당	sina@cans21.net
조은주	성남시자원봉사센터 연구개발팀장	cej98@hanmail.net
조주현	디딤돌학교 교장	leo1968@empal.com
지관근	성남시의회 시의원	jikk5356@paran.com
최은정	중원문화정보센터 담당	ch2jay@simc.or.kr
표신중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팀장	eventstage@ggcf.or.kr
하동근	성남문화연대 공동대표	oradix@kfem.or.kr
한성심	성남시의회 시의원	hss1123@hanmail.net
황정주	성남민예총 지부장	frogjj@hanmail.net

